



2022.6.

국회예산정책처 | 경제 동향 | 제30호

NABO 경제 동향

NABO Economic Trends

CONTENTS

경제 동향

경제 현안 | 미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점검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본 원고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동향

2022년 6월호 통권 제30호

Contents

I. 지출

1. 소비	6
2. 투자	8
3. 대외거래	13
4. 소비자물가	15

II. 생산·고용·인구

1. 생산	19
2. 고용	31
3. 인구	37

III. 금융·자산

1. 금융시장	40
2. 에너지 및 원자재	43
3. 부동산	49

IV. 해외경제 동향

1. 미국	52
2. 중국	54
3. 유로지역	56
4. 일본	58

V. 경제 현안

1. 미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점검	60
---------------------------------------	----

주요 거시경제 지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1Q	2Q	3Q	4Q	1Q	3월	4월	5월
전산업생산	-1.1	4.9	2.7 (1.7)	7.3 (0.6)	3.9 (0.9)	5.7 (1.5)	3.9 (1.3)	3.3 (1.6)	4.5 (-0.7)	
광공업생산	-0.3	7.4	4.7 (3.7)	13.1 (-0.6)	5.8 (1.0)	6.4 (1.1)	4.7 (3.8)	3.7 (1.1)	3.3 (-3.3)	
서비스업생산	-2.0	4.4	2.3 (0.6)	5.7 (1.7)	3.9 (1.1)	5.5 (1.5)	4.0 (0.0)	3.7 (1.5)	5.1 (1.4)	
소매판매액	-0.2	5.9	6.7 (1.7)	5.0 (2.2)	5.6 (0.8)	6.4 (1.1)	2.8 (-1.1)	2.1 (-0.7)	0.5 (-0.2)	
설비투자지수	5.9	9.6	12.4 (6.0)	13.2 (0.7)	6.2 (-0.8)	6.2 (-0.2)	-1.3 (0.2)	-5.3 (-2.2)	-11.9 (-7.5)	
건설기성액	-2.1	-6.7	-9.0 (-5.2)	-7.2 (-1.9)	-8.1 (-1.1)	-2.9 (4.1)	-1.6 (-2.0)	-5.2 (1.2)	-1.1 (1.4)	
수출(통관)	-5.5	25.7	12.5	42.0	26.5	24.5	18.3	18.8	12.9	21.3
수입(통관)	-7.1	31.5	12.4	37.7	37.5	39.4	29.5	27.8	18.6	32.0
경상수지 (억달러)	759.0	883.0	223.4	194.2	256.5	208.9	150.6	70.6	-0.8	
실업률	4.0	3.7	5.0	3.9	2.8	2.9	3.5	3.0	3.0	3.0
취업자수 (천명)	-218	369	-380	618	577	660	1,001	831	865	935
소비자물가	0.5	2.5	1.4	2.5	2.5	3.5	3.8	4.1	4.8	5.4
원/달러환율	1,086	1,189	1,125	1,116	1,165	1,182	1,207	1,212	1,256	1,237
국고채금리 (3년)	0.99	1.39	1.04	1.19	1.45	1.87	2.24	2.37	2.94	3.02

주: 1. ()안은 전기대비 증가율

2. 국고채 수익률, 원/달러 환율은 기간 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산업통상자원부

지출

4월 중 소매판매는 의약품,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판매가 줄어 두 달 연속 감소

■ 의복 등 준내구재와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가 늘었으나 의약품 등 비내구재 판매가 줄어 전월대비 0.2% 감소

- 소매판매(전월대비, %): ('22.2월)0.0 → (3월)-0.7 → (4월)-0.2
- 내구재(전월대비, %): ('22.2월)9.4 → (3월)-7.3 → (4월)0.4
- 준내구재(전월대비, %): ('22.2월)-0.6 → (3월)-2.9 → (4월)7.7
- 비내구재(전월대비, %): ('22.2월)-4.5 → (3월)4.1 → (4월)-3.4

4월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에서 모두 줄며 전월대비 감소

- 설비투자지수(전월대비, %): ('22.2월)-5.6 → (3월)-2.2 → (4월)-7.5

4월 중 건설투자(건설기성)는 플랜트 등 토목 공사를 중심으로 증가

- 건설기성액(전월대비, %): ('22.2월)-7.2 → (3월)1.2 → (4월)1.4
- 건축(전월대비, %): ('22.2월)-7.2 → (3월)-1.0 → (4월)0.8
- 토목(전월대비, %): ('22.2월)-7.1 → (3월)7.9 → (4월)3.0

5월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수입 증가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무역수지는 두 달 연속 적자

- 수출(전년동월대비, %): ('22.3월)18.8 → (4월)12.9 → (5월)21.3
- 수입(전년동월대비, %): ('22.3월)27.8 → (4월)18.6 → (5월)32.0
- 무역수지(억달러): ('22.3월)2.1 → (4월)-25.1 → (5월)-17.1

5월 소비자물가는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 가격의 높은 오름세 지속으로 전년동월대비 상승

■ 2022년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5.4% 상승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3월)4.1 → (4월)4.8 → (5월)5.4
- 공업제품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3월)6.9 → (4월)7.8 → (5월)8.3
- 개인서비스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3월)4.4 → (4월)4.5 → (5월)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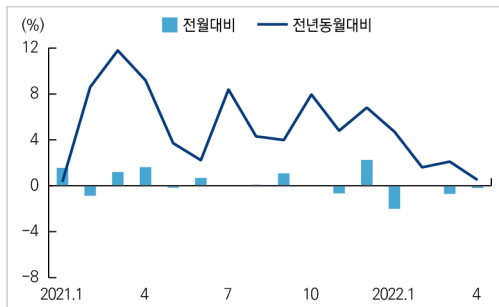
1. 소비

4월 「소매판매」는 의약품 등 비내구재 판매가 줄며 전월에 이어 감소

■ 소매판매는 의복 등 준내구재(7.7%)와 승용차 등 내구재(0.4%) 판매가 늘었으나 의약품 등 비내구재(-3.4%) 판매가 줄어 전월대비 0.2%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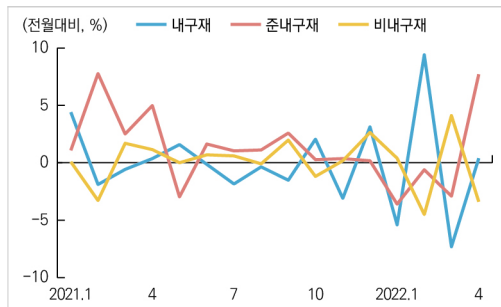
- 소매판매(전월대비, %): ('22.2월)0.0 → (3월)-0.7 → (4월)-0.2
- 승용차 제외 소매판매(전월대비, %): ('22.2월)-1.5 → (3월)-0.1 → (4월)-0.8
- 승용차 소매판매(전월대비, %): ('22.2월)13.3 → (3월)-5.3 → (4월)4.7

[그림 1] 소매판매지수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그림 2] 내구연한별 소매판매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 내구재는 가전제품, 통신기기·컴퓨터, 가구 등의 판매가 축소되었으나 승용차 판매가 늘어 전월대비 0.4% 증가

- 내구재(전월대비, %): ('22.2월)9.4 → (3월)-7.3 → (4월)0.4

■ 준내구재는 의복, 신발·가방, 오락·취미·경기용품 판매가 늘면서 전월대비 7.7% 증가

- 준내구재(전월대비, %): ('22.2월)-0.6 → (3월)-2.9 → (4월)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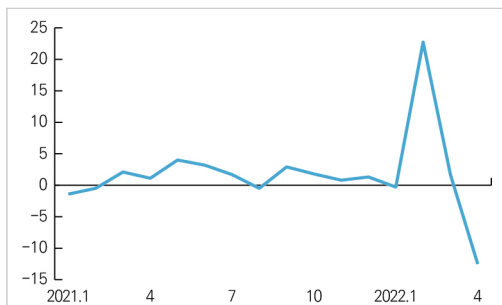
■ 비내구재는 차량연료, 서적·문구 등의 판매 확대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화장품, 음식료품의 판매가 축소되며 전월대비 3.4% 감소

-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며 의약품 판매가 감소하고 외부활동이 증가하면서 음식료품 판매가 외식 수요로 전환됨
- 비내구재(전월대비, %): ('22.2월)-4.5 → (3월)4.1 → (4월)-3.4

■ 소매업태별로는 면세점(-17.6%), 슈퍼마켓 및 잡화점(-2.9%)에서 전월대비 판매가 줄어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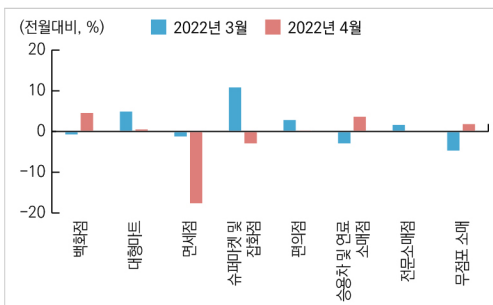
-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3.6%), 무점포소매¹⁾(1.8%), 백화점(4.5%), 대형마트(0.5%), 전문소매점²⁾(0.1%), 편의점(0.24%)에서 판매가 늘어남

[그림 3] 의약품 소매판매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그림 4] 업태별 소매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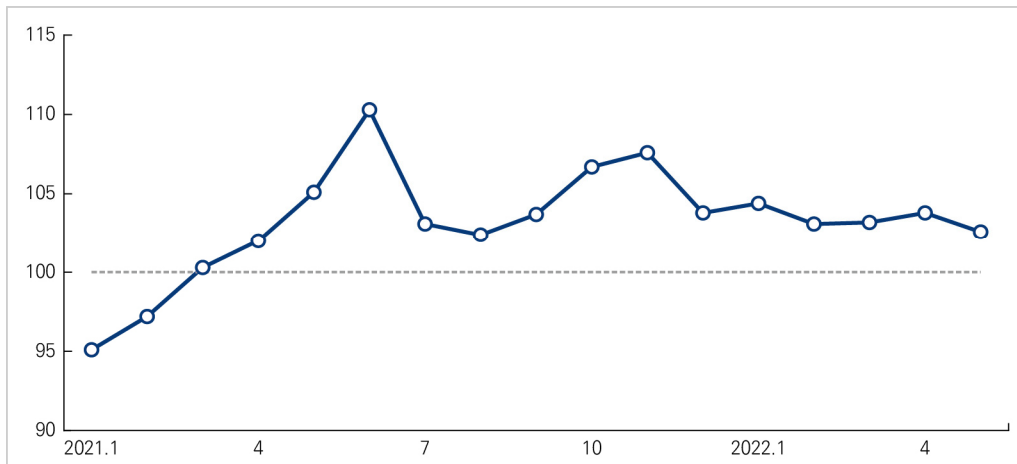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5월 「소비자심리지수」는 3개월 만에 소폭 내림세로 전환

■ 소비자심리지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도 불구하고 물가 및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며 전월대비 1.2p 하락한 102.6을 기록

-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항목³⁾ 가운데 현재생활형편(89, -3p), 향후경기전망(84, -3p), 생활형편전망(93, -1p), 가계수입전망(98, -1p) 지수가 하락
- 현재경기판단 지수는 전월 수준을 지속하고 소비지출전망(116, +2p) 지수는 상승
- 소비자심리지수: ('22.2월)103.1 → (3월)103.2 → (4월)103.8 → (5월)102.6

[그림 5]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주: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21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 1) 무점포소매점은 매장없이 인터넷, 홈쇼핑, 배달, 방문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소매점을 의미
- 2) 의복, 통신기기, 가전제품, 의약품 등 특정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소매점
- 3)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2. 투자

가. 설비투자

4월 중 「설비투자」는 전월에 이어 감소세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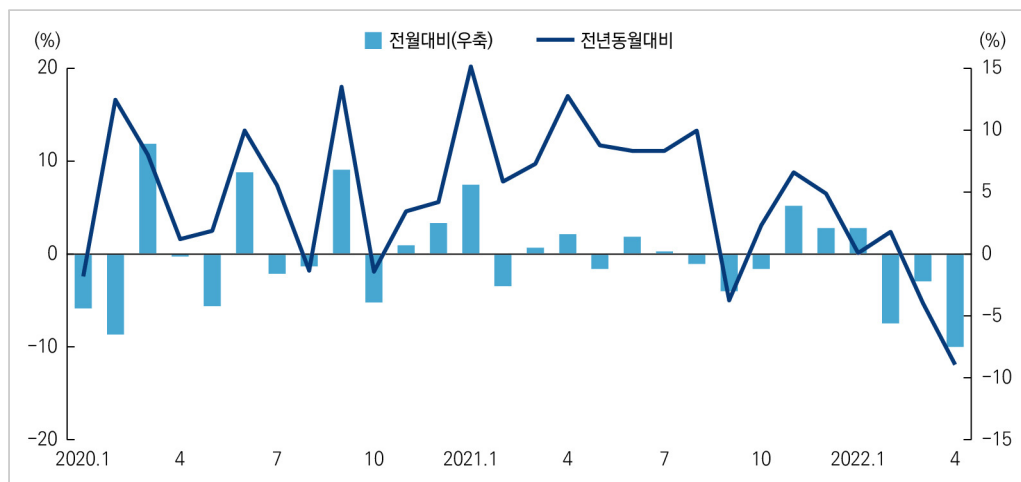
■ 설비투자는 기계류(-9.0%)와 운송장비(-2.1%)에서 모두 줄어들면서 전월대비 7.5% 감소

- 설비투자(전월대비, %): ('22.2월)-5.6 → (3월)-2.2 → (4월)-7.5
- 기계류(전월대비, %): ('22.2월)-1.2 → (3월)-2.0 → (4월)-9.0
- 운송장비(전월대비, %): ('22.2월)-17.1 → (3월)-3.1 → (4월)-2.1

■ 전년동월대비로는 기계류(-11.9%)와 운송장비(-11.4%)에서 모두 크게 줄어들며 11.9% 감소

- 설비투자(전년동월대비, %): ('22.2월)2.4 → (3월)-5.3 → (4월)-11.9
- 기계류(전년동월대비, %): ('22.2월)2.0 → (3월)-3.9 → (4월)-11.9
- 운송장비(전년동월대비, %): ('22.2월)3.4 → (3월)-9.8 → (4월)-11.4

[그림 6] 설비투자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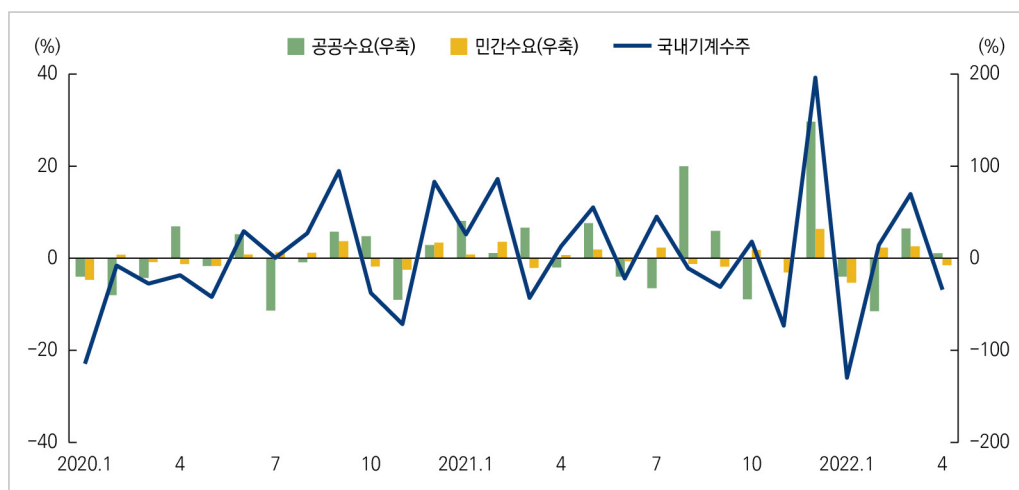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4월 중 주요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 「기계류 내수출하」, 「기계류 수입액」 모두 감소

■ 국내기계수주는 공공부문(5.3%)에서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민간제조업(-4.3%)과 민간비제조업(-13.5%) 부문에서 모두 감소하면서 전월대비 6.8% 감소

- 공공부문(전월대비, %): ('22.2월)-57.5 → (3월)32.3 → (4월)5.3
- 민간부문(전월대비, %): ('22.2월)11.4 → (3월)12.9 → (4월)-7.5
- 민간제조업(전월대비, %): ('22.2월)16.9 → (3월)8.9 → (4월)-4.3
- 민간비제조업(전월대비, %): ('22.2월)1.6 → (3월)21.0 → (4월)-13.5

[그림 7] 국내기계수주 전월대비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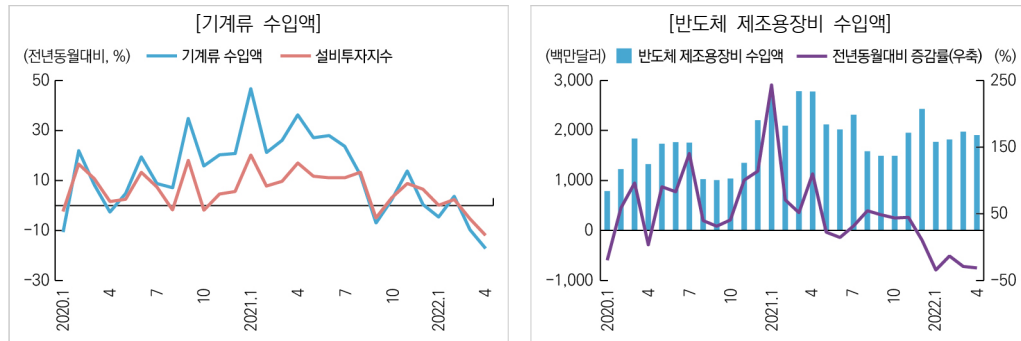
■ 기계류 내수출하는 전월대비 9.2% 감소 전환

- 기계류 내수출하(전월대비, %): ('22.2월)-7.0 → (3월)4.8 → (4월)-9.2

■ 기계류 수입액은 반도체 제조용장비(-31.2%), 항공기 및 부품(-64.8%) 등에서 줄며 전년동월대비 17.2% 감소

- 기계류 수입액(전년동월대비, %): ('22.2월)3.7 → (3월)-9.7 → (4월)-17.2

[그림 8] 기계류 수입액 및 반도체 제조용장비 수입액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무역협회

자료: 무역협회

나. 건설투자

4월 중 「건설기성(불변)」은 토목을 중심으로 증가

■ 주거용 건물과 플랜트가 각각 건축과 토목 공사 실적 증가를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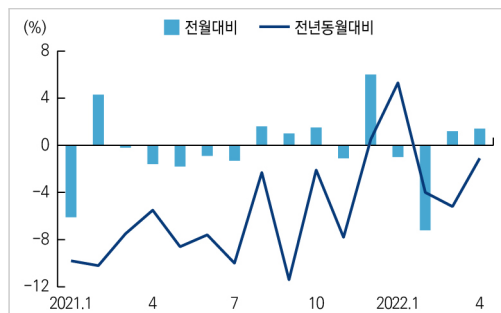
■ 부문별로 토목(3.0%)과 건축(0.8%) 공사가 모두 늘어 전월대비 1.4% 증가

- 건설기성액(전월대비, %): ('22.2월)-7.2 → (3월)1.2 → (4월)1.4
- 건축(전월대비, %): ('22.2월)-7.2 → (3월)-1.0 → (4월)0.8
- 토목(전월대비, %): ('22.2월)-7.1 → (3월)7.9 → (4월)3.0

■ 전년동월대비로는 토목(0.3%) 공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축(-1.5%)이 줄어 1.1%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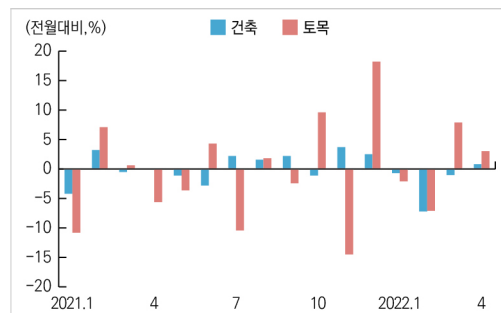
- 건설기성액(전년동월대비, %): ('22.2월)-4.0 → (3월)-5.2 → (4월)-1.1

[그림 9] 건설기성(불변)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그림 10] 공종별 건설기성(불변)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4월 중 「건설기성(경상)」은 전년동월대비 건축과 토목 공사가 모두 증가

■ 건축부문(경상)은 주거용 건축(12.2%)과 비주거용 건축(4.0%)이 모두 늘어 전년동월대비 9.1% 상승

- 건축(경상, 전년동월대비, %): ('22.2월)11.2 → (3월)8.1 → (4월)9.1
- 주거용(경상, 전년동월대비, %): ('22.2월)17.5 → (3월)2.4 → (4월)12.2
- 비주거용(경상, 전년동월대비, %): ('22.2월)1.1 → (3월)18.0 → (4월)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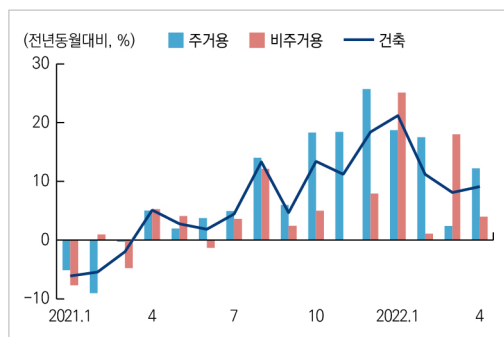
■ 토목부문(경상)은 전기기계의 감소에도 일반토목과 플랜트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12.0% 증가

- 토목(경상, 전년동월대비, %): ('22.2월)-2.5 → (3월)1.8 → (4월)12.0
- 일반토목(경상, 전년동월대비, %): ('22.2월)-16.7 → (3월)6.2 → (4월)2.8
- 전기기계(경상, 전년동월대비, %): ('22.2월)-4.5 → (3월)-41.7 → (4월)-17.0
- 플랜트(경상, 전년동월대비, %): ('22.2월)16.2 → (3월)18.8 → (4월)38.0

■ 발주자별 건설기성액(경상)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서 각각 전년동월대비 2.8%, 12.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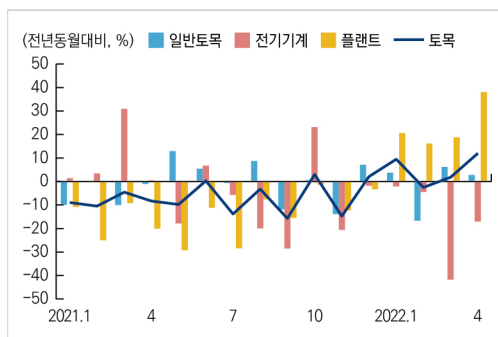
- 공공기관(경상, 전년동월대비, %): ('22.2월)2.5 → (3월)3.7 → (4월)2.8
- 민간기관(경상, 전년동월대비, %): ('22.2월)9.8 → (3월)7.9 → (4월)12.1

[그림 11] 공종별 건축기성(경상)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그림 12] 공종별 토목기성(경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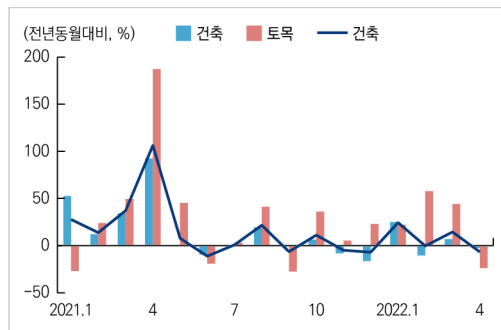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4월 「건설수주(경상)」는 도로·교량·토지 조성 등 토목 수주를 중심으로 감소로 전환

■ 건설수주(경상)는 건축(-2.3%)과 토목(-23.7%)이 모두 줄어 전년동월대비 6.6% 감소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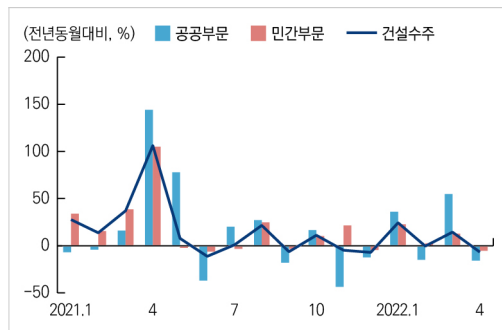
- 건축 수주는 공장 및 창고, 관공서 등의 수주가 늘었으나 사무실 및 점포, 주택 수주가 줄면서 전년동월대비 2.3% 감소
- 토목 수주는 기계설치가 늘었으나 도로 및 교량, 토지조성, 발전 및 통신 등이 줄면서 전년동월대비 23.7% 감소
- 발주처별로는 민간부문(-5.3%)과 공공부문(-15.8%)이 모두 감소
- 건설수주(전년동월대비, %): ('22.2월)-0.3 → (3월)14.4 → (4월)-6.6

[그림 13] 공종별 수주(경상)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그림 14] 발주자별 수주(경상)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3. 대외거래

가. 수출입 및 무역수지

5월 「수입」이 「수출」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무역수지」는 전월에 이어 적자 지속

■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1.3% 늘어난 615.2억 달러로 19개월 연속 증가하였고, 일평균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0.7% 늘어난 26.8억 달러 기록

- 수출(전년동월대비, %): ('22.3월)18.8 → (4월)12.9 → (5월)21.3
- 일평균수출(억달러): ('22.3월)27.7 → (4월)24.6 → (5월)2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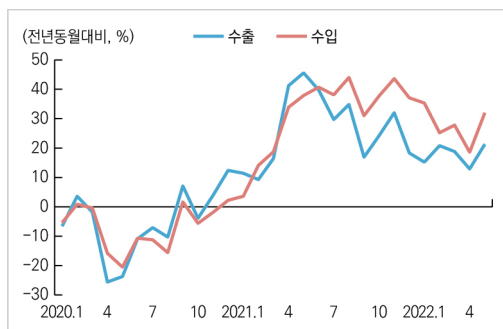
■ 수입은 에너지 등 원자재 가격 급등과 중간재 수입확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32.0% 증가한 632.2억 달러로 17개월 연속 증가세

- 수입(전년동월대비, %): ('22.3월)27.8 → (4월)18.6 → (5월)32.0

■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수출대비 수입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무역수지는 2개월 연속 적자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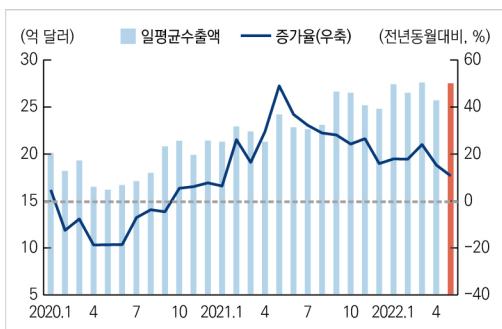
- 무역수지(억달러): ('22.3월)2.1 → (4월)-25.1 → (5월)-17.1

[그림 15] 수출입 증가율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동향」

[그림 16] 일평균 수출액 및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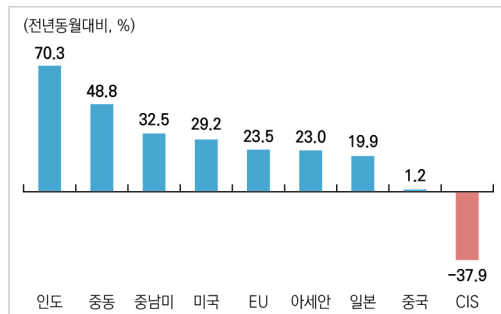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동향」

9대 지역 중 CIS 지역으로의 수출이 감소, 중국으로의 수출은 소폭 증가에 그침

■ 미국, EU, ASEAN으로의 수출은 각각 29.2%, 23.5%, 23.0% 증가하였으나, 중국으로의 수출은 1.2%, CIS 지역으로의 수출은 37.9%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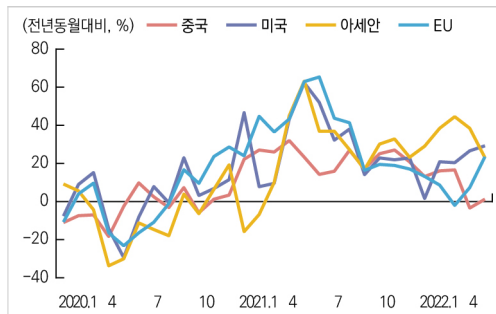
- 대미국 수출(전년동월대비, %): ('22.3월)20.9 → (4월)26.6 → (5월)29.2
- 대ASEAN 수출(전년동월대비, %): ('22.3월)46.2 → (4월)38.4 → (5월)23.0
- 대중 수출(전년동월대비, %): ('22.3월)16.7 → (4월)-3.4 → (5월)1.2
- 대CIS 수출(전년동월대비, %): ('22.3월)-37.8 → (4월)-46.5 → (5월)-37.9

[그림 17] 2022년 5월 중 지역별 수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동향」

[그림 18] 지역별 수출 증가율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동향」

나. 경상수지

4월 「경상수지」는 24개월만에 적자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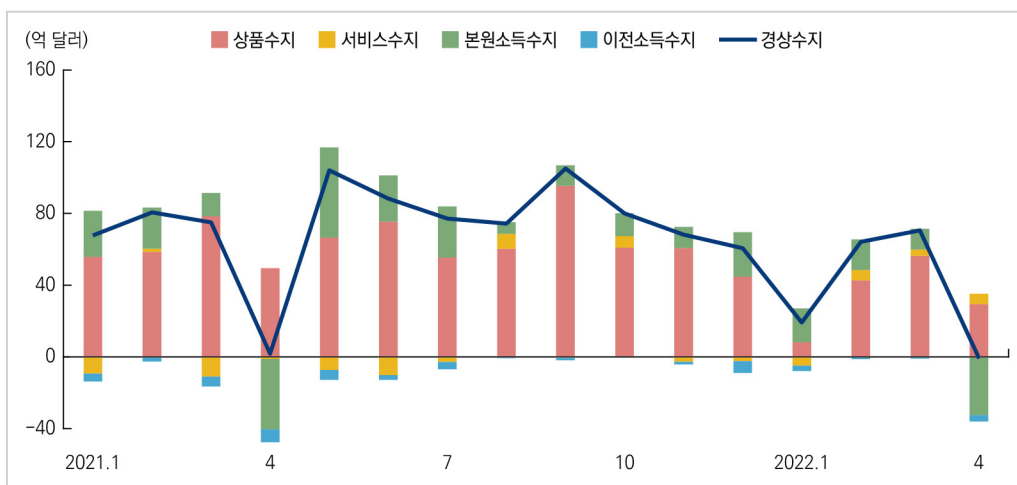
■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전년동월대비 축소되고, 4월 외국인 배당지급 확대로 본원소득수지가 적자를 내면서 8천만달러 적자 기록

- 경상수지(억달러): ('22.2월)64.2 → (3월)70.6 → (4월)-0.8

■ 상품수지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입이 급증하면서 전년동월(49.5억 달러)보다 흑자폭이 축소된 29.5억 달러 기록

- 상품수지(억달러): ('22.2월)42.7 → (3월)56.4 → (4월)29.5

[그림 19] 항목별 경상수지



자료: 한국은행, 「국제수지」

■ 본원소득수지는 4월 외국인 배당지급이 60.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32.5억달러 적자를 나타냄

- 본원소득수지(억달러): (‘22.2월)17.1 → (3월)11.5 → (4월)-32.5

4. 소비자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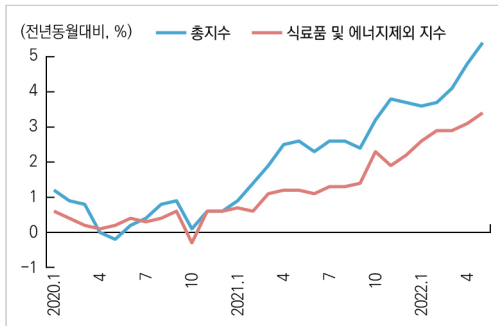
5월 「소비자물가」는 공업제품, 서비스 등의 오름세가 지속되며 전년동월대비 5.4% 상승

■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4.2%), 공업제품(8.3%), 서비스(3.5%) 물가의 오름폭이 모두 확대되며 높은 물가상승률이 지속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3월)4.1 → (4월)4.8 → (5월)5.4
- 근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3월)2.9 → (4월)3.1 → (5월)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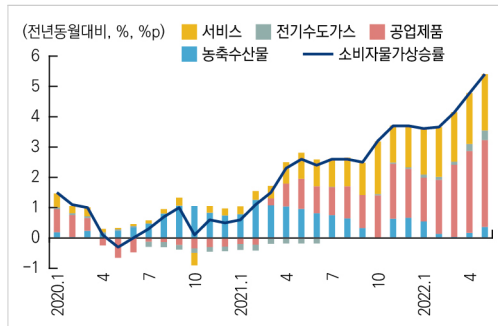
※ 근원물가: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상승률

[그림 20]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추이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그림 21] 주요 품목별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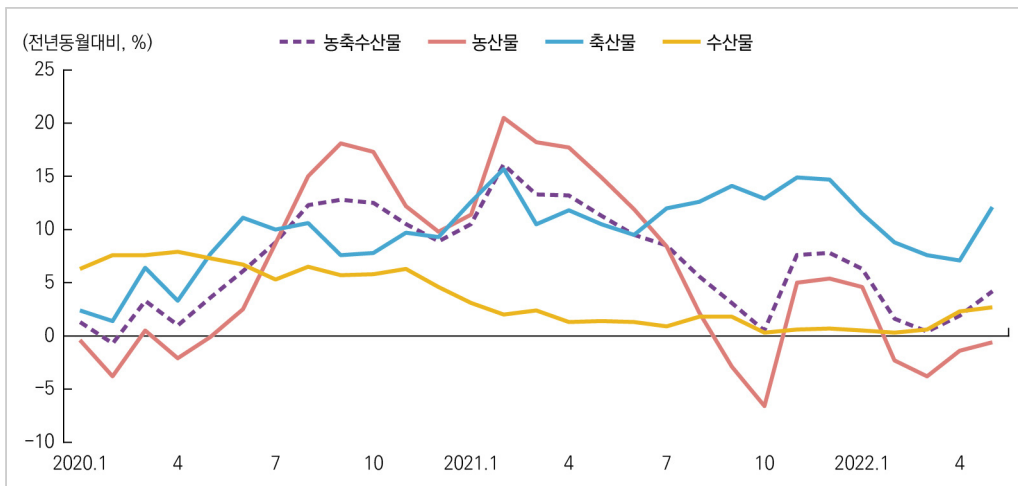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 농축수산물 물가는 농산물(-0.6%) 물가의 하락폭이 축소되고 축산물(12.1%) 물가의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전월대비 4.2% 상승

- 농축수산물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3월)0.4 → (4월)1.9 → (5월)4.2
- 농산물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3월)-3.8 → (4월)-1.4 → (5월)-0.6
- 축산물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3월)7.6 → (4월)7.1 → (5월)12.1
- 수산물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3월)0.6 → (4월)2.3 → (5월)2.7

[그림 22] 농축수산물 품목별 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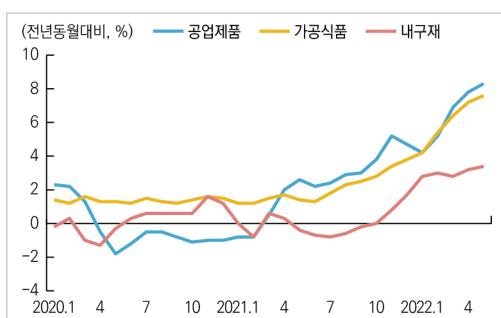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 공업제품 물가는 국제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석유류(34.8%), 가공식품(7.6%) 등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8.3%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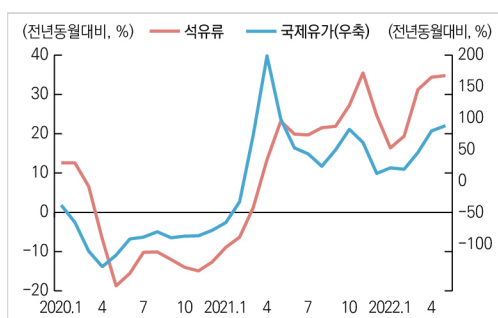
- 공업제품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3월)6.9 → (4월)7.8 → (5월)8.3
- 석유류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3월)31.2 → (4월)34.4 → (5월)34.8
- 가공식품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3월)6.4 → (4월)7.2 → (5월)7.6
- 국제유가(3개유종 평균, 달러/배럴): ('22.3월)112.4 → (4월)103.4 → (5월)110.1

[그림 23] 공업제품 품목별 상승률 추이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그림 24] 석유류제품 가격과 국제유가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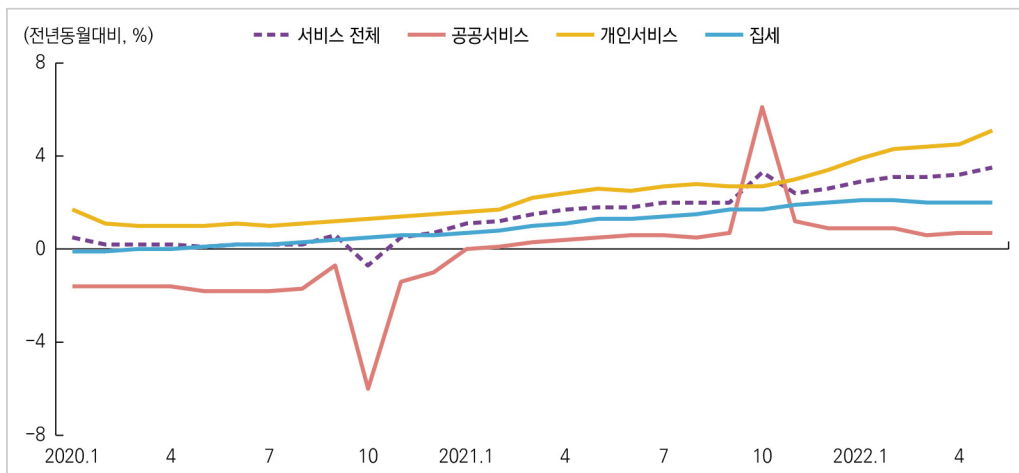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Bloomberg

■ 서비스 물가의 경우 외식 등 개인서비스 물가의 상승세가 지속되며 3.5% 상승

- 서비스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3월)3.1 → (4월)3.2 → (5월)3.5
- 공공서비스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3월)0.6 → (4월)0.7 → (5월)0.7
- 개인서비스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3월)4.4 → (4월)4.5 → (5월)5.1

[그림 25] 서비스 물가 추이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생산·고용·인구

4월 중 「생산」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증가

-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4.5% 증가, 전월대비로는 0.7% 감소
 - 전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2.2월)4.2 → (3월)3.3 → (4월)4.5
 -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 ('22.2월)-0.3 → (3월)1.6 → (4월)-0.7
-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의약품, 전자부품 등이 늘어 전년동월대비 3.7% 증가
 - 제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2.2월)6.2 → (3월)3.7 → (4월)3.7
-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 금융 및 보험, 숙박 및 음식점 등이 늘어 전년동월대비 5.1% 증가
 - 서비스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2.2월)3.7 → (3월)3.7 → (4월)5.1

5월 주요 11대 산업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반면, 전월대비로는 감소

- 석유는 역대 수출 1위, 반도체·화학·철강은 역대 5월 중 수출 1위 달성하며 전년동월대비 19.0% 증가
 - 11대산업 수출(전년동월대비, %): ('22.3월)18.3 → (4월)16.0 → (5월)19.0
 - 11대 산업 수출(전월대비, %): ('22.3월)16.4 → (4월)-6.7 → (5월)2.8
- 품목별로는 반도체, 화학, 일반기계 등이 수출 증가세를 견인
 - 반도체 수출(전년동월대비, %): ('22.3월)38.0 → (4월)15.8 → (5월)15.0
 - 화학 수출(전년동월대비, %): ('22.3월)15.5 → (4월)6.7 → (5월)14.1
 - 철강 수출(전년동월대비, %): ('22.3월)26.8 → (4월)27.8 → (5월)28.8

4월 중 「경기동행지수」 및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모두 전월에 이어 감소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전월대비, %p): ('22.2월)0.2 → (3월)-0.2 → (4월)-0.3
-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전월대비, %p): ('22.2월)-0.3 → (3월)-0.2 → (4월)-0.3

5월 중 「고용」은 전년대비 증가폭이 전월에 이어 확대되며 회복 흐름 지속

-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증가폭이 전월에 이어 확대
 - 전체 취업자수 증감(전년대비, 만명): ('22.3월)83.1 → (4월)86.5 → (5월)93.5
- 「산업별 취업자 수」는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에서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
- 「연령별 취업자 수」는 전 연령대에서 전년동월대비 증가

4월 「주민등록인구」는 지속적인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전년동월대비 10만명(-0.19%) 감소

-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는 29개월 째 마이너스를 지속
- 2022년 1분기 출생아 수와 혼인건수는 전년동기대비 소폭 감소, 오미크론 확산으로 고령층을 중심으로 사망자 수는 대폭 증가

1. 생산

가. 산업별 생산 및 수출 주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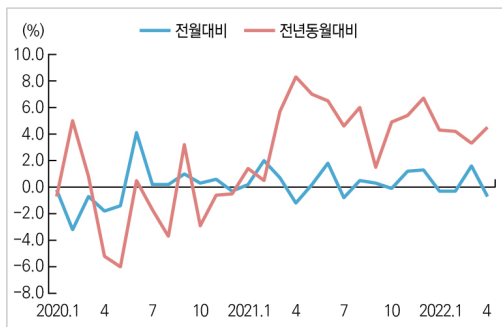
4월 중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증가

-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4.5% 증가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전월대비로는 광공업, 공공행정에서 줄어 0.7% 감소

- 전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2.2월)4.2 → (3월)3.3 → (4월)4.5
-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 ('22.2월)-0.3 → (3월)1.6 → (4월)-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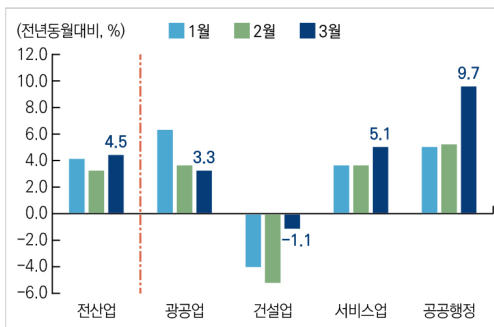
- 산업 부문별로는 전년동월대비 광공업(3.3%), 서비스업(5.1%), 공공행정(9.7%) 등에서 생산이 증가하였고, 전월대비로는 서비스업(1.4%), 건설업(1.4%)에서 생산이 증가

[그림 1] 전산업생산 월별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2] 부문별 생산 추이



자료: 통계청

4월 중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증가

- 전년동월대비: 기계장비(-10.2%), 금속가공(-7.5%), 1차금속(-4.8%) 등이 줄었으나, 반도체(35.0%), 의약품(13.2%), 전자부품(5.6%) 등이 늘어 3.7% 증가

- 제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2.2월)6.2 → (3월)3.7 → (4월)3.7

■ 전월대비로는 고무·플라스틱(0.8%), 영상·음향기기(4.9%), 기타제품(2.7%) 등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반도체(-3.5%), 식료품(-5.4%), 금속가공(-4.9%) 등의 생산이 줄어 3.1% 감소

● 제조업 생산(전월대비, %): ('22.2월)0.3 → (3월)1.2 → (4월)-3.1

[표 1] 제조업 생산 동향

(단위: 2015=100,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1			2022			
	2월	3월	4월	2월	3월*	4월*	전월대비
제조업(원지수)	100.0	119.1	114.6	106.2	123.5	118.8	-3.1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4	4.8	12.7	6.2	3.7	3.7	
반도체	19.7	25.5	29.6	30.9	26.5	35.0	-3.5
자동차	23.3	-0.4	18.5	3.5	-6.3	-2.4	-0.8
화학	0.2	8.5	11.9	-1.4	-0.6	-2.6	-3.0
일반기계	5.6	9.0	20.2	-2.5	-5.9	-10.2	-2.1
철강	-6.6	-1.3	5.7	0.0	1.8	-4.1	-4.1
조선	-30.0	-17.1	-13.5	4.5	5.9	6.3	-1.5

주: *표는 잠정치

자료: 통계청

4월 중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세 지속, 전월대비 증가로 전환

■ 전년동월대비 도매 및 소매(2.9%), 금융 및 보험(3.2%), 숙박 및 음식점(17.1%) 등이 늘어 5.1% 증가하며 증가세 지속

● 서비스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2.2월)3.7 → (3월)3.7 → (4월)5.1

■ 전월대비로도 숙박 및 음식점(11.5%), 예술·스포츠·여가(13.3%), 운수·창고(2.6%) 등이 늘어 1.4% 증가

● 서비스업 생산(전월대비, %): ('22.2월)-0.4 → (3월)1.5 → (4월)1.4

[표 2] 서비스업 생산 동향

(단위: 2015=100, 전년동월대비 %)

업종별	2021			2022			
	2월	3월	4월	2월	3월*	4월*	전월대비
서비스업(원지수)	101.6	111.6	109.5	105.4	115.7	115.1	1.4
서비스업	0.9	7.9	8.2	3.7	3.7	5.1	
도매 및 소매	3.0	8.3	9.3	1.8	2.7	2.9	0.0
금융 및 보험	11.6	9.9	11.9	0.8	4.0	3.2	0.1
숙박 및 음식점	-11.1	19.5	8.3	11.1	6.3	17.1	11.5

주: *표는 잠정치

자료: 통계청

5월 중 「주요 11대 산업¹⁾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반면, 전월대비로는 감소

■ 석유는 역대 수출 1위, 반도체·화학·철강은 역대 5월 중 수출 1위 달성하며 전년동월대비 19.0% 증가

- 반도체(15.0%), 자동차(15.1%), 화학(14.1%), 철강(28.8%), 석유(65.6%), 조선(44.2%), 컴퓨터주변장치(13.4%) 등의 수출이 증가
- 11대 산업 수출(전년동월대비, %): ('22.3월)18.3 → (4월)16.0 → (5월)19.0

■ 전월대비로는 반도체(6.7%), 화학(4.1%), 일반기계(2.5%), 철강(8.8%), 조선(93.6%) 등의 산업에서 수출이 증가하여 2.8% 증가

- 11대 산업 수출(전월대비, %): ('22.3월)16.4 → (4월)-6.7 → (5월)2.8

[표 3] 산업별 수출 동향

(단위: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1				2022					
	2월	3월	4월	5월	2월	3월	4월*	전월대비	5월*	전월대비
11대 산업	8.1	15.9	46.5	49.3	21.4	18.3	16.0	-6.7	19.0	2.8
반도체	13.1	8.5	30.2	24.5	23.8	38.0	15.8	-17.5	15.0	6.7
자동차	26.7	14.3	81.3	117.0	5.0	-6.5	2.4	3.1	15.1	-3.6
화학	23.7	47.7	82.3	93.8	25.4	15.5	6.7	-8.9	14.1	4.1
일반기계	-5.8	6.1	17.1	25.7	0.6	2.8	0.0	-11.1	3.2	2.5
철강	3.4	12.6	38.8	62.3	39.5	26.8	27.8	-4.4	28.8	8.8
조선	3.7	62.4	14.4	-14.9	15.7	-35.7	-16.6	-32.2	44.2	93.6

주: *표는 잠정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 반도체는 중국 봉쇄령에 따른 생산 차질에도 불구하고, 파운드리 업황 호조, 하반기 신규 CPU 서버 출시 및 클라우드, AI 관련 투자 확대가 전망되며 전년동월대비 15.0% 증가하며 23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 지속

- D램 고정가(\$): ('21.4~6)3.80 → (7~9)4.10 → (10~12)3.71 → ('22.1~4)3.41 → ('22.5)3.35
- 낸드 고정가(\$): ('20.10~'21.3)4.20 → (4~6)4.56 → ('21.7~'22.5)4.81

1) 자동차(수송기계), 반도체, 화학, 일반기계, 철강, 조선, 석유, 무선통신기기, 섬유, 가전, 컴퓨터 주변장치를 의미하며, 자동차는 자동차부품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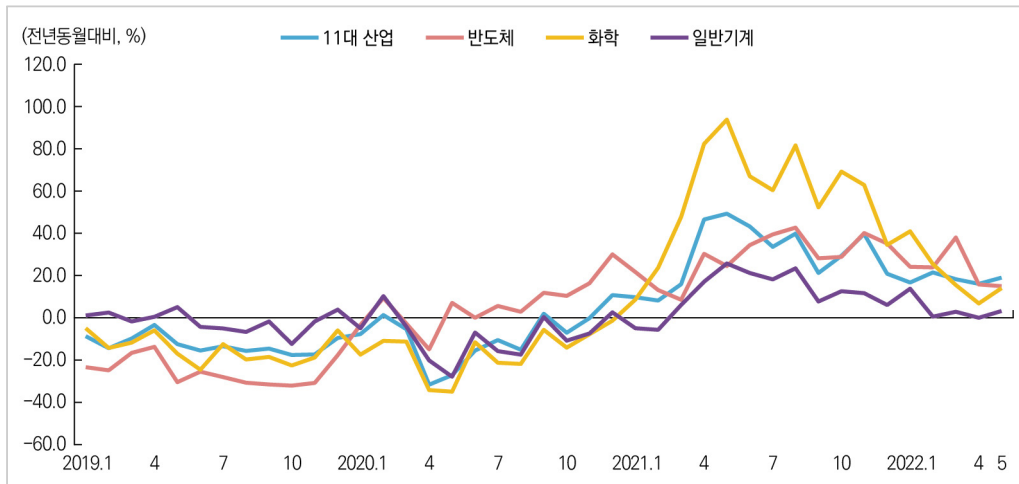
■ 화학은 건설·자동차 등 전방산업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초 에틸렌, 프로필렌 등 설비증설에 따른 생산 확대와 수출단가의 동시 증가로 14.0% 증가

- 국제유가(두바이유, \$/B): ('21.5)66.34 → ('22.5)108.16(63.0%)
- 석유화학 수출단가(\$/톤): ('21.5)1,529 → ('22.5e)1,569(2.6%)

■ 일반기계는 중국 경기 둔화,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른 시장위축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도 등을 중심으로 인프라 및 설비투자가 확대되며 건설·공작기계의 수출이 증가하며 3.2% 증가

- 중국 제조업 PMI: ('22.1) 50.1 → (2) 50.2 → (3) 49.5 → (4) 47.4 → (5) 49.6
- 일반기계 수출액/증감률(억 달러): ('21.5) 42.7(25.7%) → ('22.5) 44.1(3.2%)

[그림 3] 11대 산업 및 주요 주력 산업의 수출증가율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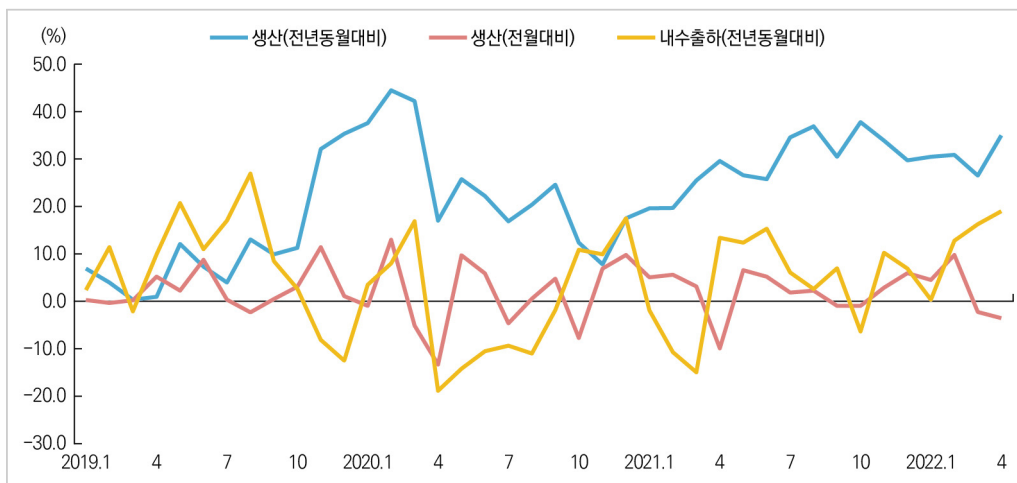
나. 제조업 생산

반도체: 4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감소

■ 4월 중 반도체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35.0%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3.5% 감소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2.2월)30.9 → (3월)26.5 → (4월)35.0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2.2월)9.8 → (3월)-2.2 → (4월)-3.5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2.2월)12.8 → (3월)16.3 → (4월)19.0

[그림 4] 반도체 산업 생산·내수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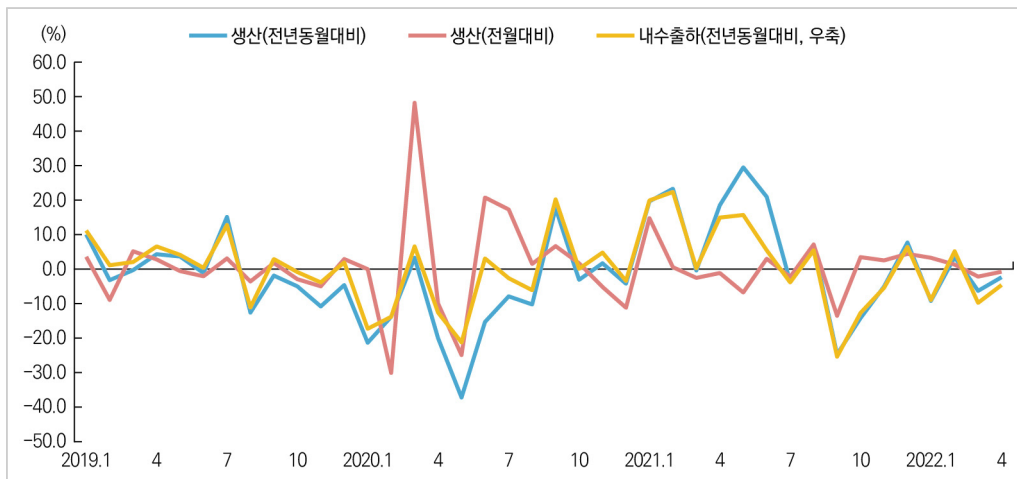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자동차: 4월 「생산」은 중국 부품공급 차질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감소

■ 4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각각 2.4%, 0.8% 감소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2.2월)3.5 → (3월)-6.3 → (4월)-2.4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2.2월)1.3 → (3월)-2.2 → (4월)-0.8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2.2월)5.2 → (3월)-9.8 → (4월)-4.6

[그림 5] 자동차 산업 생산·내수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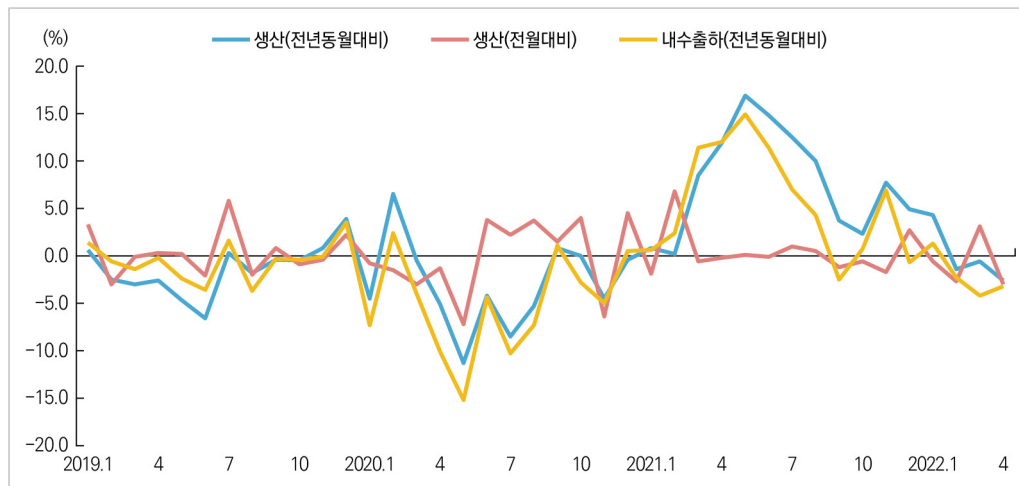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화학: 4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감소

■ 4월 화학산업의 생산은 화학섬유 제조업과 비료 및 질소화합물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6%, 전월대비로는 3.0% 감소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2.2월) -1.4 → (3월) -0.6 → (4월) -2.6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2.2월) -2.7 → (3월) 3.1 → (4월) -3.0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2.2월) -2.3 → (3월) -4.2 → (4월) -3.2

[그림 6] 화학 산업 생산·내수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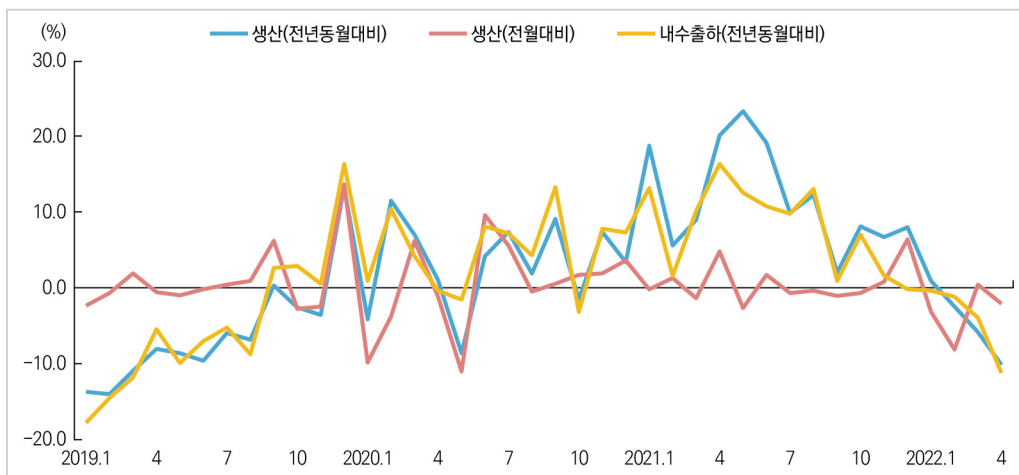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일반기계: 4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증가

■ 4월 중 일반기계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0.2%, 전월대비로는 2.1% 각각 감소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2.2월)-2.5 → (3월)-5.9 → (4월)-10.2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2.2월)-8.2 → (3월)0.4 → (4월)-2.1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2.2월)-1.2 → (3월)-4.0 → (4월)-11.3

[그림 7] 일반기계 산업 생산·내수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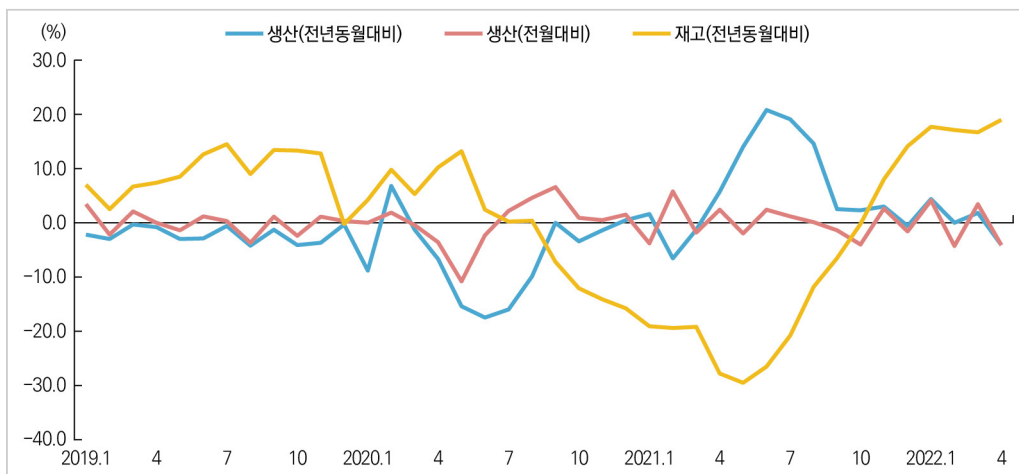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철강: 4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감소

■ 4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각각 4.1%, 4.1% 감소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2.2월)0.0 → (3월)1.8 → (4월)-4.1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2.2월)-4.3 → (3월)3.4 → (4월)-4.1
- 재고(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2.2월)17.1 → (3월)16.7 → (4월)19.0

[그림 8] 철강 산업 생산·재고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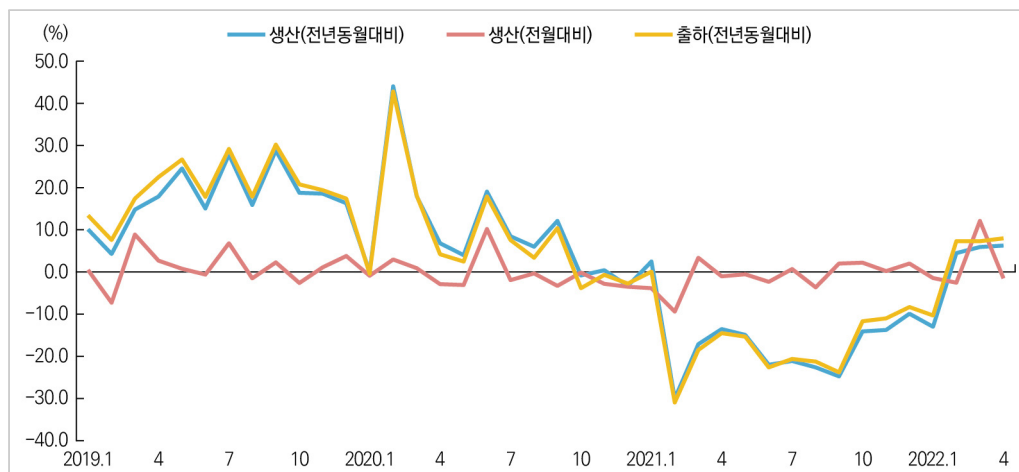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조선: 4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으며, 「출하」도 증가

■ 4월 중 생산은 2021년 3~4월간 국내 수주가 전년동기대비 늘어난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6.3% 증가하였으며, 출하도 8.0% 증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2.2월)4.5 → (3월)5.9 → (4월)6.3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2.2월)-2.5 → (3월)12.1 → (4월)-1.5
- 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2.2월)7.3 → (3월)7.3 → (4월)8.0

[그림 9] 조선 산업 생산·출하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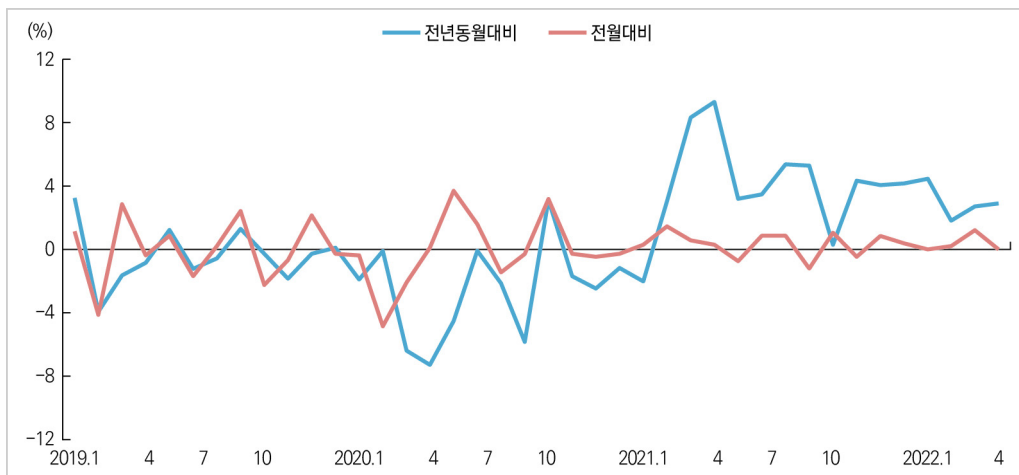
다. 서비스업 생산

도매 및 소매: 4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월대비 보합

■ 4월 중 도매 및 소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도매업과 소매업이 각각 4.5%, 2.4% 늘어 2.9%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보합세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2.2월)1.8 → (3월)2.7 → (4월)2.9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2.2월)0.2 → (3월)1.2 → (4월)0.0

[그림 10] 도매 및 소매업 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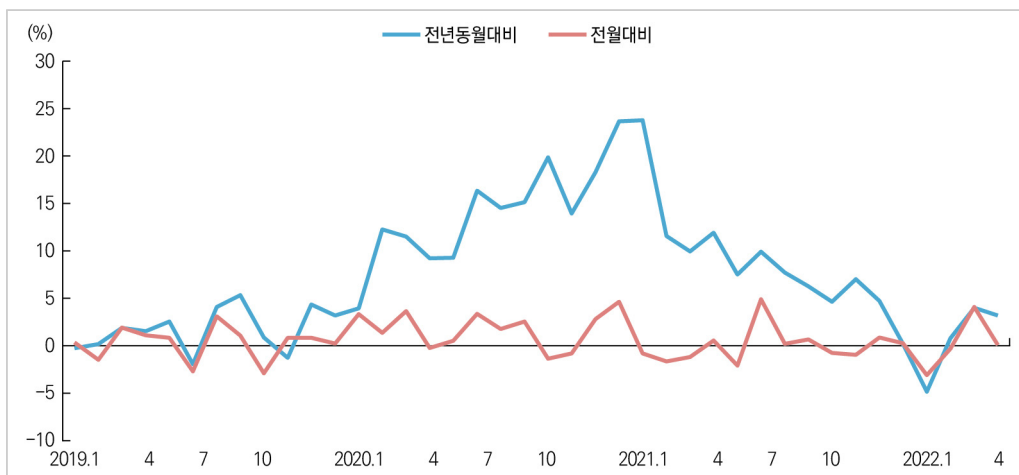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금융 및 보험: 4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증가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부문이 기저효과로 22.9% 감소한 반면, 금융업(13.1%)의 증가로 금융 및 보험업 생산이 전년동월대비 3.2% 증가

- 전월대비로는 보험업(-5.4%)과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5.9%)이 감소한 반면 은행 및 저축기관을 중심으로 금융업(2.9%)이 늘어나면서 금융 및 보험업 생산은 0.1% 증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2.2월)0.8→(3월)4.0→(4월)3.2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2.2월)-0.3→(3월)4.1→(4월)0.1

[그림 11] 금융 및 보험업 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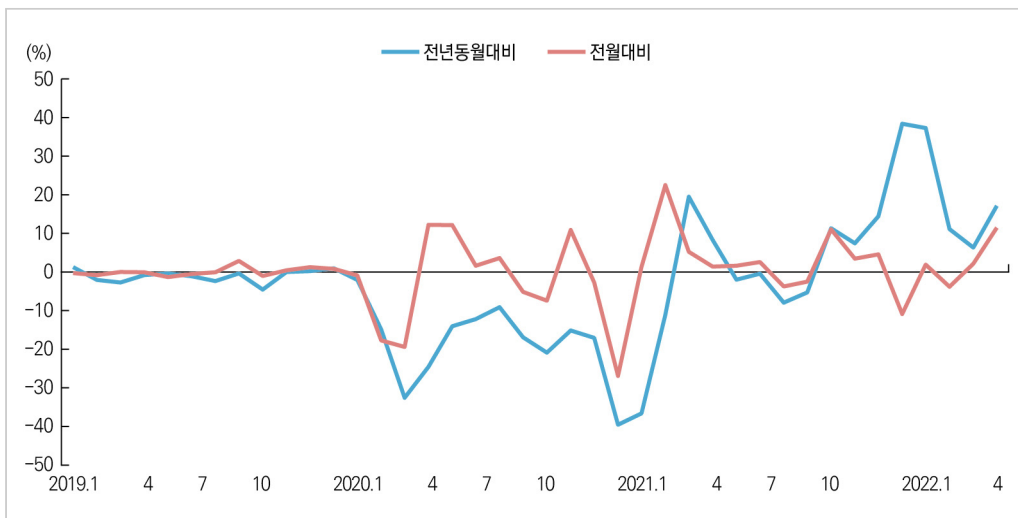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숙박 및 음식점: 4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증가

■ 4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각각 17.1%, 11.5% 증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2.2월)11.1 → (3월)6.3 → (4월)17.1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2.2월)-3.8 → (3월)2.1 → (4월)11.5

[그림 12]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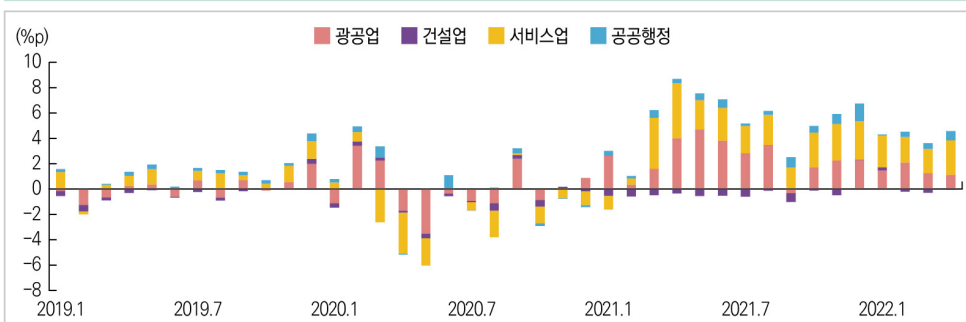
[서비스업 생산 기여도]

■ 전 산업 생산 증감에 대한 서비스업의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

- 전 산업 생산 증감에 대한 서비스업의 기여도는 작년 3분기 이후 광공업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 2021년 9월 전 산업 생산 증감에 대한 광공업의 기여도는 마이너스(-0.33%p)로 전락하였으나, 서비스업의 기여도는 1.72%p를 기록
 - 2022년 4월 전 산업 생산 증감에 대한 서비스업의 기여도(2.72%p)는 광공업(1.13%p) 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
- 대면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행으로 기여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서비스업 생산의 회복세를 견인
 - 대면서비스업은 코로나19 재확산이 반복되면서 회복이 지연되었으나, 2021년 2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되면서 서비스업 생산에 대한 기여도가 확대

*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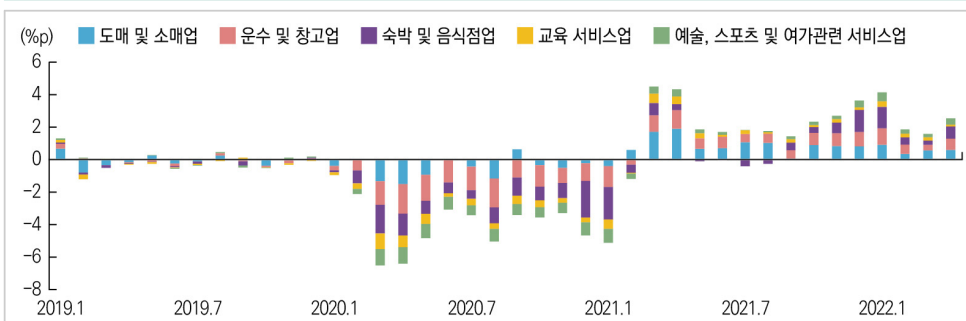
[전산업 생산 증감에 대한 부문별 기여도¹⁾ 추이]



주: 1)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서비스업 생산 증감에 대한 대면서비스업의 기여도¹⁾ 분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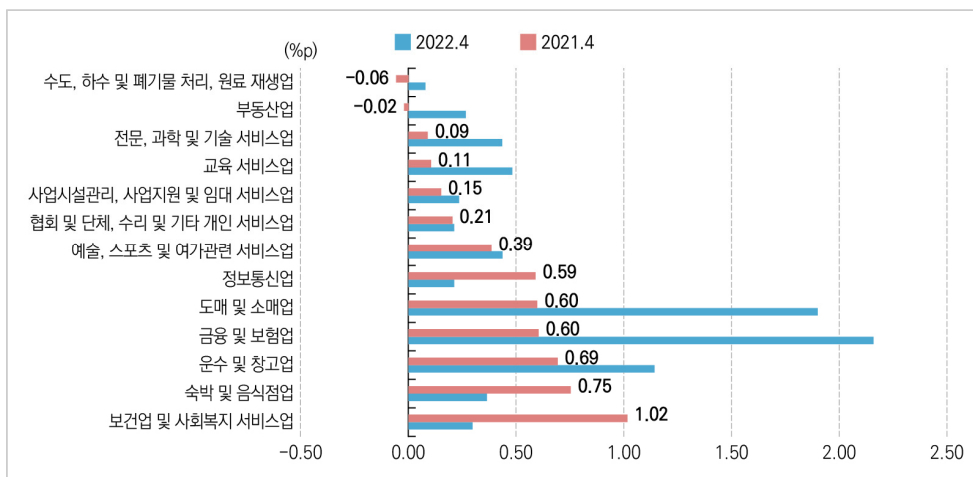
주: 1)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4월 중 서비스업 생산 증감에 대한 기여도에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 기여도가 크게 상승

- 서비스업 생산 증감에 대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기여도(1.02%p)는 방역수요·사회 안전망 확충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크게 확대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기여도(%p): ('21.4월)0.30 → ('22.4월)1.02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조치로 숙박 및 음식점업의 기여도(0.75%p)는 전년동월대비 상승
 - 숙박 및 음식점업 기여도(%p): ('21.4월)0.37 → ('22.4월)0.75
- 비대면 시장 확대로 정보통신업의 기여도(0.59%p)는 전년동월대비 상승
 - 정보통신업 기여도(%p): ('21.4월)0.21 → ('22.4월)0.75
- 반면, 도매 및 소매업과 금융 및 보험업 등은 전년동월대비 기여도가 하락
 - 도매 및 소매업 기여도(%p): ('21.4월)1.90 → ('22.4월)0.60
 - 금융 및 보험업 기여도(%p): ('21.4월)2.16 → ('22.4월)0.60

[서비스업 생산 증감에 대한 업종별 기여도¹⁾ 비교(2021년 4월, 2022년 4월)]



주: 1)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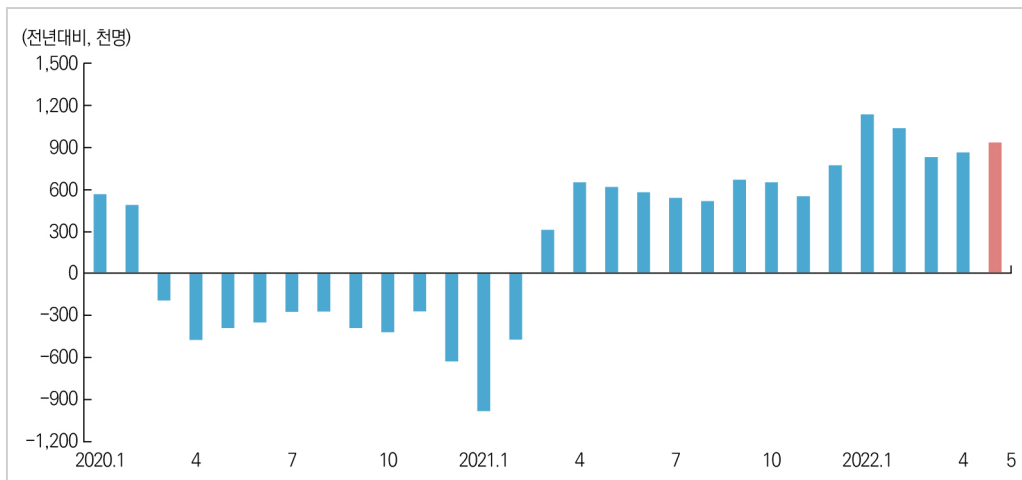
2. 고용

5월 중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증가폭이 전월에 이어 확대

- 5월 중 전체 취업자 수(2,848.5만 명)는 전년대비 93.5만명(3.4%) 늘어 전월(86.5만 명, 3.2%)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폭 확대되며 견실한 회복세 지속

- 전체 취업자수 증감(전년대비, 만명): ('22.3월)83.1 → (4월)86.5 → (5월)93.5

[그림 13] 전체 취업자수 월별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 실업률(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은 3.0%로 전년대비 1.0%p 하락하였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4.9%로 전년대비 1.2%p 상승

- 실업률(%): ('22.3월)3.0 → (4월)3.0 → (5월)3.0
- 청년층(15~29세) 실업률(%): ('22.3월)7.2 → (4월)7.4 → (5월)7.2
- 경제활동참가율(%): ('22.3월)63.3 → (4월)64.0 → (5월)64.9

- 고용률(15세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63.0%로 전년대비 1.8%p 상승

- 고용률(%): ('22.3월)61.4 → (4월)62.1 → (5월)63.0
-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69.2%로 전년대비 2.3%p 상승
-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7.8%로 전년대비 3.4%p 상승

5월 「산업별 취업자 수」는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에서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

■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7.2만 명 증가하여 16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

- 건설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2.3월)6.4 → (4월)4.8 → (5월)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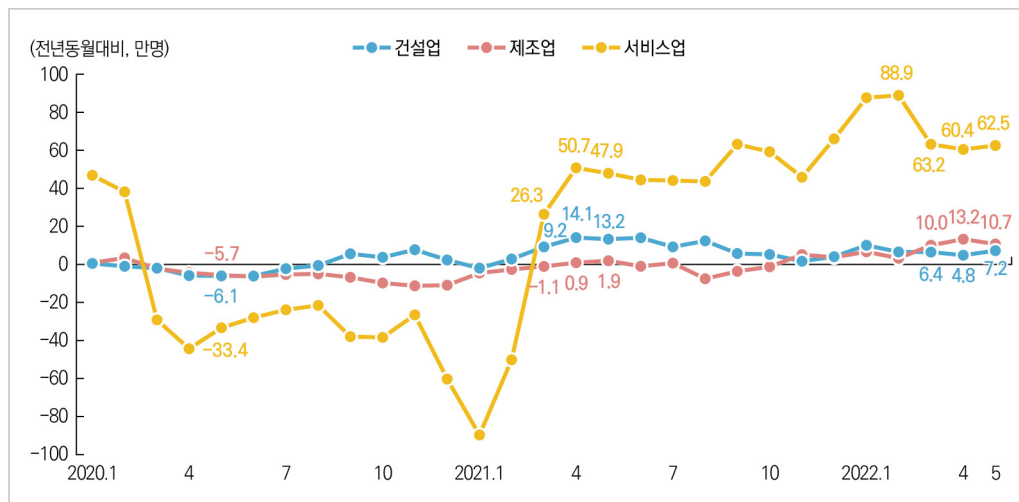
■ 제조업 취업자 수는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0.7만 명 증가

-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2.3월)10.0 → (4월)13.2 → (5월)10.7

■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비대면·디지털 전환 관련 업종(전문과학기술, 정보·통신, 운수·창고)과 공공 비중이 높은 업종(보건·복지, 공공행정) 등의 증가에 힘입어 큰 폭의 증가세 지속

-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2.3월)63.2 → (4월)60.4 → (5월)62.5
- 보건·복지 및 공공행정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2.3월)31.9 → (4월)32.1 → (5월)27.7
- 비대면·디지털 전환 관련 업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2.3월)23.4 → (4월)22.6 → (5월)28.2

[그림 14]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5월 「연령별 취업자 수」는 전 연령대에서 전년동월대비 증가

■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2021년 3월 이후 15개월 연속 증가

- 청년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2.3월)17.7 → (4월)18.6 → (5월)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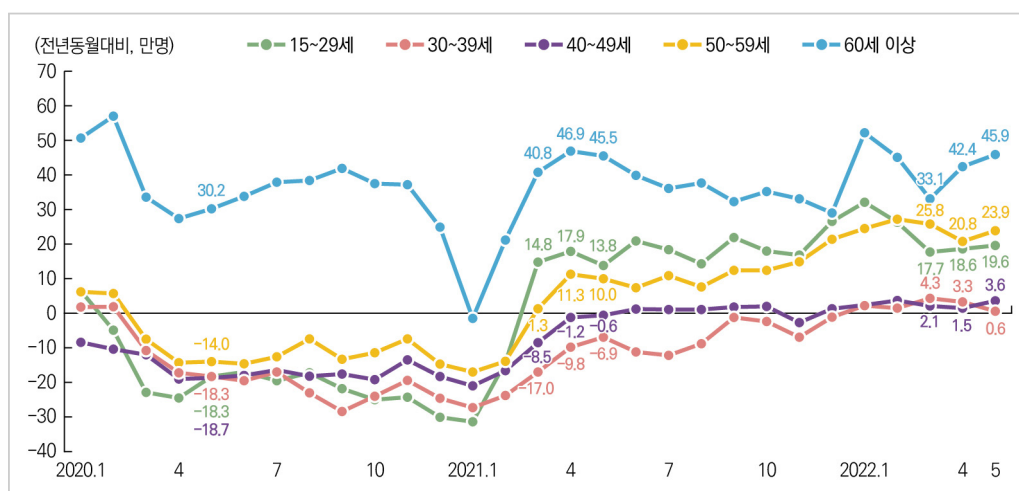
■ 핵심 노동연령대(30~50대) 중 30~40대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세는 부진한 반면, 50대는 20만 명 이상의 증가를 지속

- 30대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2.3월)4.3 → (4월)3.3 → (5월)0.6
- 40대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2.3월)2.1 → (4월)1.5 → (5월)3.6
- 50대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2.3월)25.8 → (4월)20.8 → (5월)23.9

■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 연령대 중 가장 크게 증가였고, 증가폭도 2개월 연속 확대

- 60세 이상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2.3월)33.1 → (4월)42.4 → (5월)45.9

[그림 15] 연령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2년 1/4분기 가계소득 동향]

1. 주요 특징

■ 1/4분기 가계소득은 통계 발표 이후(2006년) 최대 폭으로 증가하며 분배지표도 개선

- 고용시장 호조, 전반적인 업황 개선 등의 영향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4분기 연속 증가, 1차 추경 집행 등으로 이전소득도 증가
 - 항목별 소득(만원, 증가율): (근로소득) 306.2, 10.2% (사업소득) 86.2, 12.4% (이전소득) 78.0, 7.9%
- 모든 소득분위에서 소득이 증가했으나, 1분위의 사업소득은 감소(-7.0%)
 - 분위별 소득 증가율(%): (1분위) 14.6 (2분위) 10.4 (3분위) 9.2 (4분위) 7.1 (5분위) 11.5
- 소득 5분위배율은 6.20배로 전년동기대비 하락하며 소득분배 수준은 개선

■ 가계의 흑자액이 큰 폭으로 상승

- 소비지출은 물가상승, 전년도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4.7%)하였으나, 처분가능소득* 증가 폭 (10.0%)이 더 커 흑자액이 큰 폭으로 상승(21.7%)
 - ※ 처분가능소득 = 총소득 - 비소비지출,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 - 소비지출
- 적자가구(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큰 가구) 비율이 감소하였으나, 1분위의 적자가구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57.2%)

2. 가계소득 및 소득분배

■ (소득)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동분기대비 명목, 실질 모두 증가

- 가계소득은 전년동분기대비 10.1%, 실질소득 기준 6.0% 증가
- 경상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이전소득이 모두 증가하며 10.1% 증가
- 근로소득은 고용 증가와 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10.2% 증가
 - 취업자(전년동분기대비, 만명) : ('21.1/4) -38.0 → ('22.1/4) 100.1
 - 전체근로자 임금상승률(전년동분기, %): ('21.1/4) 4.2 → ('22.1~2월) 7.5
- 사업소득은 자영업자 수 증가와 거리두기 완화 등에 따른 서비스업 업황 개선 등의 영향으로 12.4% 증가
 - 자영업자(전년동분기대비, 만명): ('21.1/4)110.6 → ('22.1/4)10.3
 - 서비스업생산지수(전년동분기대비, %): ('21.1/4)2.3 → ('22.1/4)4.1
 - 사회적 거리두기: ('21.12.18) 4인 9시, ('22.1.17)6인 9시, (2.19)6인 10시, (3.5)6인 11시, (3.21~)8인 1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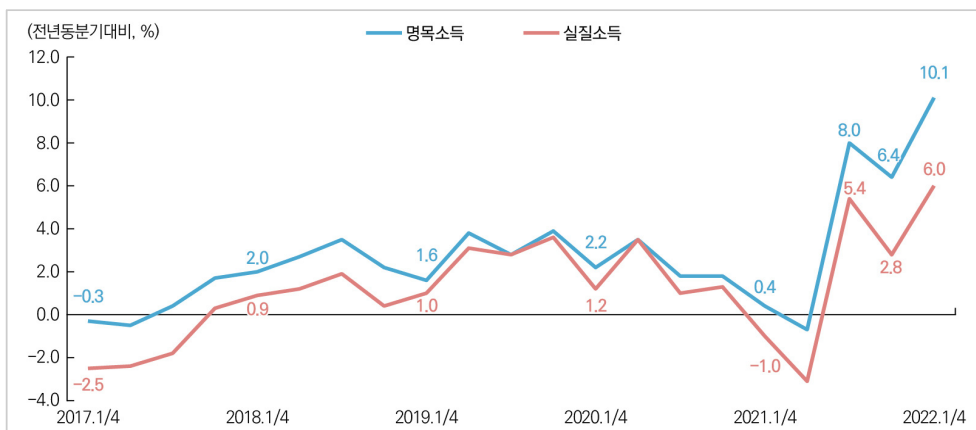
- 이전소득은 공적이전소득(9.5%)이 사회안전망 강화와 1차 추경 집행으로 크게 증가하고, 사적 이전소득(4.3%)도 증가함에 따라 7.9% 증가
 - 국민연금급여액 인상(2.5%), 기초연금 소득기준 완화(월 169만원 → 180만원) 및 금액 인상(2.5%),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등(1월~)
 - 1차 추경 집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0조원), 손실보상(2.8조원),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0.7조원) 등
- 비경상소득은 6.0% 증가

[가구당 월평균 소득]

(단위: 천원, 전년동분기대비 %)

	금액					증감률		
	'21.1분기	구성비	'21.4분기	'22.1분기	구성비	'21.1분기	'21.4분기	'22.1분기
소득	4,384	100.0	4,642	4,825	100.0	0.4	6.4	10.1
경상소득	4,300	98.1	4,539	4,737	98.2	1.1	6.1	10.1
근로소득	2,778	63.4	2,893	3,062	63.5	-1.3	5.6	10.2
사업소득	767	17.5	1,018	862	17.9	-1.6	8.6	12.4
재산소득	33	0.7	26	32	0.7	-14.4	3.9	-2.0
이전소득	723	16.5	602	780	16.2	16.5	3.9	7.9
공적이전	497	11.3	415	544	11.3	27.9	10.7	9.5
사적이전	226	5.2	187	236	4.9	-2.4	-8.6	4.3
비경상소득	83	1.9	103	88	1.8	-26.2	26.5	6.0

[소득 증감률 추이]



주: 2019년까지 시계열은 비농림어가 대상

자료: 통계청

■ (비소비지출)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전년동분기대비 증가

※ 비소비지출은 조세, 연금, 사회보험료, 이자비용, 가구간 이전 및 비영리단체로 이전 등 소비지출과 자산구입이 아닌 금액

- 경상조세(28.3%), 사회보험료(10.3%), 가구간이전지출(8.9%) 등은 증가
- 부동산 취득 관련세 등 비경상조세(-27.6%)는 감소

■ (가계수지)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전년동분기대비 증가

- 흑자액은 132만 9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21.7% 증가
 - 소비지출(4.7%)보다 처분가능소득(10.0%)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해 흑자액이 큰 폭 상승
- 평균소비성향은 65.6%로 전년동분기대비 3.3%p 하락
- 소득 증가로 적자가구 비율은 23.5%로 전년대비 1.1%p 하락
 - 분위별 적자가구 비율(%): (1분위)57.2 (2)25.0 (3)16.7 (4)12.2 (5)6.5

[가구당 월평균 흑자액 및 평균소비성향]

(단위: 천원, 전년동기대비 %, %p)

	금액			증감률		
	'21.1분기	'21.4분기	'22.1분기	'21.1분기	'21.4분기	'22.1분기
처분가능소득 ¹⁾	3,511	3,783	3,860	0.8	6.8	10.0
흑자액 ²⁾	1,092	1,236	1,329	-0.9	9.0	21.7
흑자율(%) ³⁾	31.1	32.7	34.4	-0.5p	0.7p	3.3p
평균소비성향(% ⁴⁾	68.9	67.3	65.6	0.5p	-0.7p	-3.3p

주: 1) 처분가능소득 = 소득-비소비지출(조세, 연금지출, 사회보험료 등)

2)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

3) 흑자율 = (흑자액/처분가능소득)×100

4) 평균소비성향 = (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100

자료: 통계청

■ (소득분배) 1분위의 소득증가율이 5분위를 상회하며 소득분배 개선

- 1/4분기 소득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6.20배로 전년동분기(6.30배)대비 0.10배p 하락
 - 저소득층인 1분위의 소득증가율이 5분위를 상회하며 소득 5분위배율이 하락

[분기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체가구)]

(단위: 배, 배p)

	1분기	(전년동분기대비증감)	2분기	3분기	4분기
2019a	7.40	-0.13	6.63	6.85	6.58
2019b	6.74	-	5.74	5.76	5.83
2020	6.89	0.15	5.03	5.92	5.78
2021	6.30	-0.59	5.59	5.34	5.71
2022	6.20	-0.10			

주: 1) 2019년 개편 후 5분위 배율은 기존 조사와 상이한 표본체제와 조사방식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기존 조사에서 작성된 5분위배율과 비교 불가능

2) 2019년 자료는 개편전 a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와 개편 후 b 가계동향조사 결과로 구분

3)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 상위 20%(5분위) / 하위 20%(1분위)

4)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 가구 처분가능소득 ÷ √가구원수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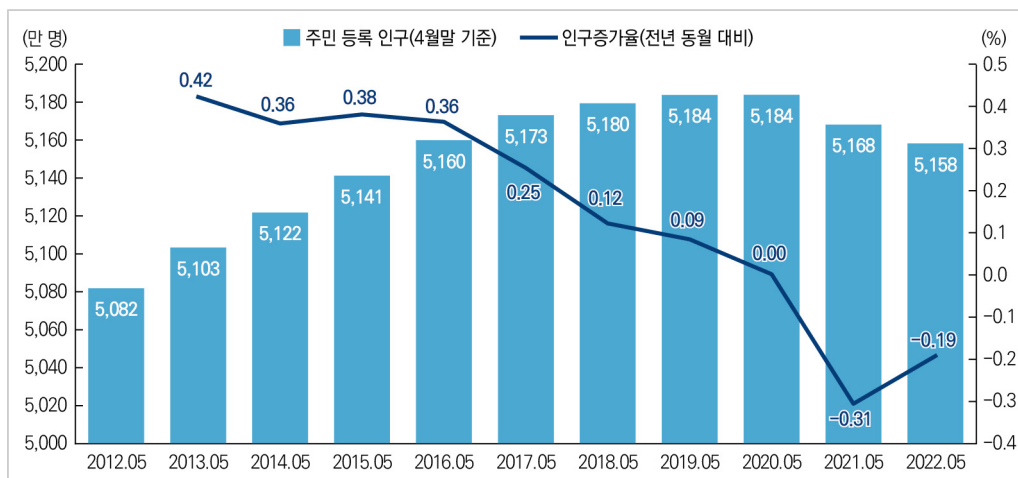
3. 인구

5월 「주민등록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0만명(-0.19%) 감소

- 지속적인 저출산·고령화로 출생아 수는 감소, 사망자 수는 증가하여 주민등록인구는 2021년부터 감소, 2022년 5월 주민등록인구는 5,15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

- 각 연도 5월 말 기준 전년동월대비 인구증가율은 2015년 0.38%, 2018년 0.12%, 2021년 -0.31%, 2022년 -0.19%로 하락

[그림 16] 주민등록인구 및 인구증가율 추이(2012.5~202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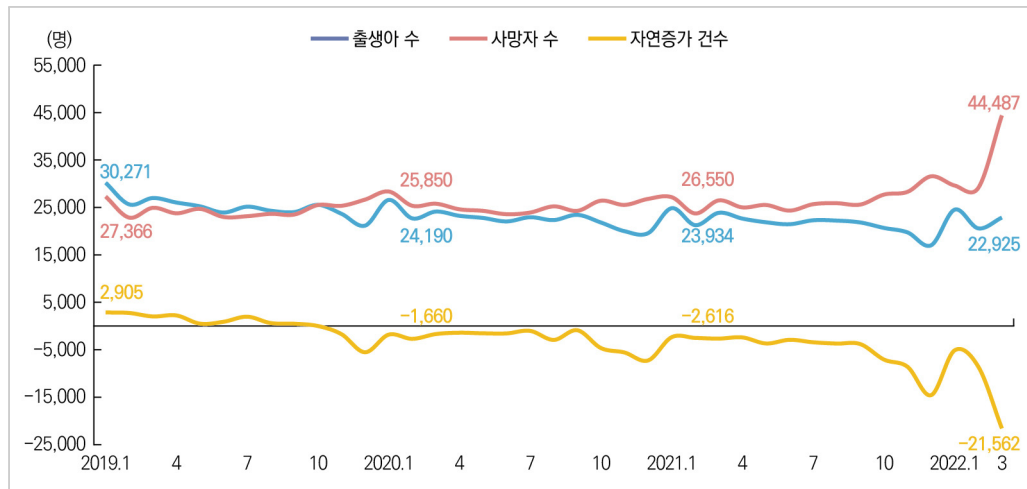
주: 각 연도 5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임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월 「출생아 수」는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 오미크론 확산으로 「사망자 수」는 대폭 증가

- 저출산 지속으로 3월 출생아 수는 전년동월대비 4.2% 감소한 22,925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
- 오미크론 확산으로 고령층을 중심으로 사망자 수가 급증하여 3월 사망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67.6% 증가한 44,487명
- 출생아 수에 비해 사망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인구 자연감소가 2만명을 넘어섰음
 - 2022년 3월 인구 자연증가(출생아 수-사망자 수)는 -21,562명으로 2019년 11월 이후 29개월 째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가 많은 “인구 자연증가 마이너스”가 지속됨

[그림 17] 월별 출생아 수, 사망자 수 및 자연증가건수 추이(2019.1~2022.3)



자료: 통계청(2022), 「국가통계포털(kosis.kr)」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2년 1분기 출생아 수와 혼인건수는 전년동기대비 소폭 감소, 사망자 수는 대폭 증가

■ 2022년 1분기 출생아 수는 68,177명, 전년동기대비 1,993명(-2.8%) 감소

-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감소폭은 다소 완화되는 모습
- 2022년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6명으로 전년동기대비 0.02명 감소

■ 2022년 1분기 사망자 수는 103,363명, 전년동기대비 25,788명(33.2%) 증가

- 고령층을 중심으로 오미크론 확산으로 사망자 수가 급증

■ 2022년 1분기 혼인 건수는 45,377건, 전년동기대비 2,637건(-5.5%) 감소

[표 4] 2022년 1분기 출생, 사망, 혼인 동향

		2020년	2021년	2021년				2022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출생	출생아 수(명)	272,337	260,494	70,170	66,169	66,537	57,618	68,177
	증감률(%)	-10.0	-4.3	-4.7	-3.1	-3.4	-6.4	-2.8
사망	사망자 수(명)	304,948	317,773	77,575	75,053	77,374	87,772	103,363
	증감률(%)	3.3	4.2	-2.7	3.3	5.1	11.2	33.2
혼인	혼인건수(건)	213,502	192,507	48,014	48,249	44,192	52,052	45,377
	증감률(%)	-10.7	-9.8	-17.6	-5.4	-6.8	-8.3	-5.5

자료: 통계청(2022), 「국가통계포털(kosis.kr)」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I

금융·자산

5월 중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통화긴축과 물가상승 압력 등으로 「금리」와 「환율」의 상승세 지속

- 국고채금리는 미 연준의 긴축기조, 한국은행 금리인상,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지속 등으로 전월보다 상승
 - 국고채금리(3년만기, %): ('22.3월)2.37 → (4월)2.94 → (5월)3.02
- 원/달러 환율은 국내외 통화 긴축, 국내 무역수지 적자, 물가상승 압력 확대 등으로 전월보다 상승
 - 원/달러 환율(월평균): ('22.3월)1,221 → (4월)1,235 → (5월)1,268

5월 중 「에너지」 가격은 전월대비 상승한 반면, 「농산물」, 「금속·광물」, 「귀금속」 지수는 하락

- 국제원유, 석탄, 천연가스 가격은 전월대비 각각 6.5%, 27.3%, 1.5% 상승
 - 국제원유 가격(달러/배럴): ('22.3월)112.4 → (4월)103.4 → (5월)110.1
 - 석탄 가격(달러/톤): ('22.3월)324.4 → (4월)288.2 → (5월)366.8
 - 천연가스 가격(달러/mmbtu): ('22.3월)15.1 → (4월)16.3 → (5월)16.5
- 농산물, 금속·광물, 귀금속 지수는 전월대비 각각 4.6%, 11.3%, 5.5% 하락한 반면, 식품 지수는 0.1% 상승
 - 농산물 지수: ('22.3월)132.8 → (4월)134.4 → (5월)133.8
 - 식품 지수: ('22.3월)157.4 → (4월)158.9 → (5월)159.0
 - 금속·광물 지수: ('22.3월)141.3 → (4월)138.1 → (5월)122.5
 - 귀금속 지수: ('22.3월)149.6 → (4월)148.1 → (5월)139.9

5월 「전력거래량」은 역대 5월 중 가장 높았으며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

- 총 전력거래량은 역대 1~5월 누적 전력거래량 최고 기록을 경신했으며, 원자력 발전량은 전년동월대비 12.9% 상승

5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규제완화 기대감 등으로 전월대비 소폭 상승

-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수도권(0.03% → -0.04)이 하락 전환하고 지방(0.09% → 0.06)의 가격 상승폭이 둔화하면서 전국은(0.06% → 0.01) 상승폭 소폭 축소

1.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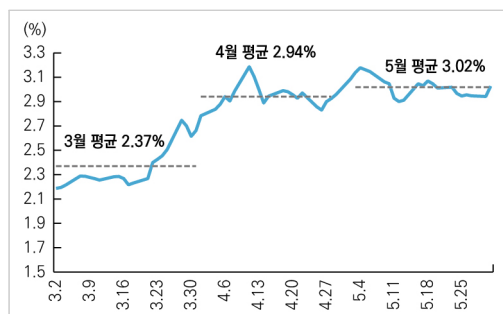
가. 금리

5월 「국고채금리」는 국내외 긴축기조 강화 및 인플레이션 우려 지속 등으로 상승

■ 국고채금리는 미 연준의 긴축기조, 한국은행 금리인상,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지속 등으로 전월대비 상승한 3.0%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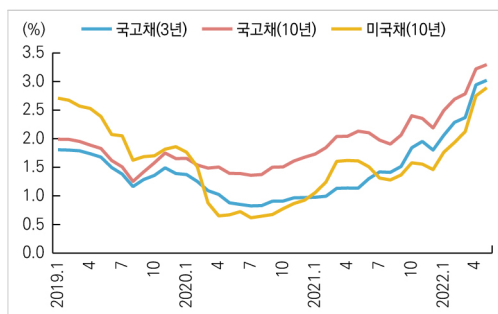
- 3년 만기 국고채금리(월평균, %): ('22.3월)2.37 → (4월)2.94 → (5월)3.02
- 10년 만기 국고채금리(월평균, %): ('22.3월)2.78 → (4월)3.22 → (5월)3.30

[그림 1] 국고채금리(3년 만기) 추이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그림 2] 국고채 및 미국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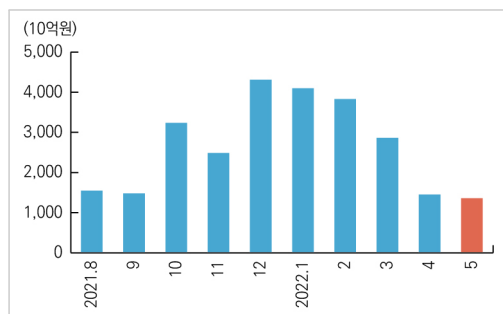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Bloomberg

■ 외국인 채권투자는 글로벌 금리상승과 원달러 환율 상승 등으로 둔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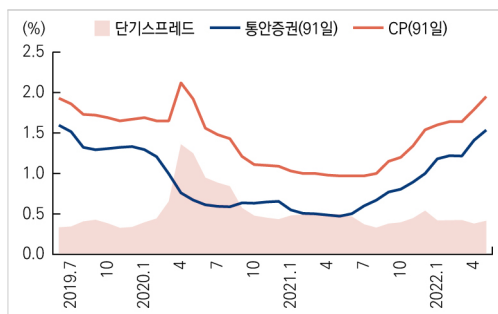
- 외국인 국채 순투자(10억원): ('22.3월)2,865 → (4월)1,452 → (5월)1,360

[그림 3] 외국인의 국채 순투자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외국인 증권투자동향」

[그림 4] 단기금리와 스프레드 추이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 단기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등으로 상승

- 통안증권금리(91일물, 월평균, %): ('22.3월)1.22 → (4월)1.41 → (5월)1.54
- CP금리(91일물, 월평균, %): ('22.3월)1.64 → (4월)1.79 → (5월)1.95

나. 환율

5월 「원/달러 환율」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 등으로 전월대비 상승한 1,268원 기록

■ 원/달러 환율은 국내외 통화 긴축, 국내 무역수지 적자, 물가상승 압력 확대 등으로 전월대비 상승

- 원/달러 환율(월평균): ('22.3월)1,221 → (4월)1,235 → (5월)1,268

■ 대외적으로 통화정책 불확실성 및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위험회피성향이 강화되고 하반기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이 높아지면서 달러화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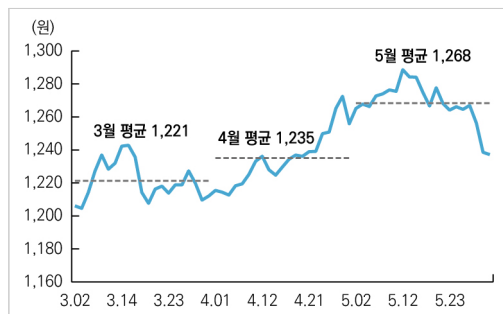
- 달러화지수(월평균): ('22.3월)98.5 → (4월)100.7 → (5월)103.1

■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장기화, 미 연준의 긴축과 인플레이션 확대에 따른 경제 불안 등으로 외국인의 주식매도가 증가하여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

- 외국인 상장주식 순매수(10억원): ('22.3월)-4,866 → (4월)-5,294 → (5월)-1,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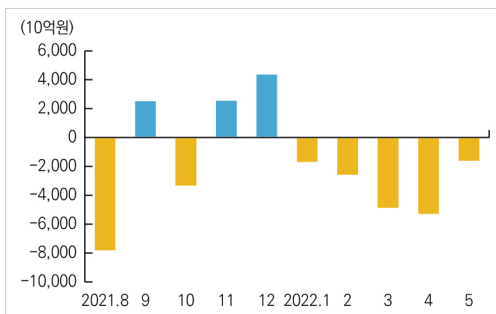
■ 그러나 월 후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한편 글로벌 주식시장 반등으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약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5월 31일 1,237원까지 하락

[그림 5]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그림 6] 외국인 국내 상장주식 순매수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다. 주가

5월 「국내 주가」는 하락한 반면 「글로벌 주가」는 보합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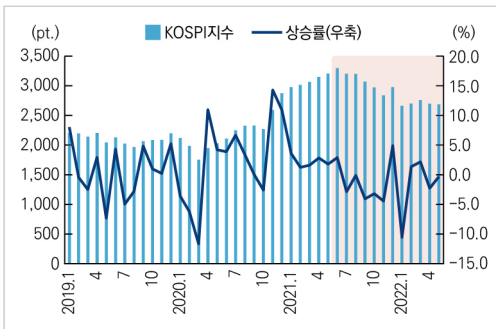
■ 2022년 5월 국내 주가는 물가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한국은행 및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긴축기조 강화 등으로 하락¹⁾

- 국내 KOSPI지수는 전월말(2,695) 대비 0.3% 하락한 2,686을 기록

■ 한편 2022년 5월 개인 투자자는 2022년 들어 처음으로 국내 주식을 순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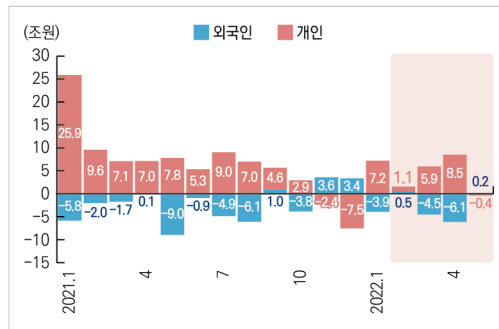
- 개인 투자자는 2022년 1~4월 국내주식을 월평균 5.7조원 순매수 하였으나 5월 중 0.4조원의 국내 주식을 순매도
- 반면 외국인 투자자는 2022년 1~4월 중 14.1조원의 국내 주식을 순매도하였으나, 5월에는 0.2조원의 국내 주식을 순매수

[그림 7] KOSPI 주가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그림 8] 투자자별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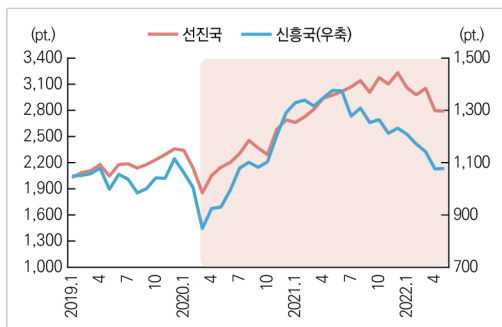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 5월 글로벌 주식시장은 대외리스크 부각에 따른 미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긴축 속도조절에 대한 기대, 하락세에 따른 관망세 부각 등으로 보합 양상

- 5월말 기준 선진국 주가는 전월 대비 0.2% 하락한 반면 신흥국 주가는 0.1% 상승
- 한편 5월말 기준 미국, 독일, 일본 주가는 전월 대비 각각 0.0%, 2.1%, 1.6%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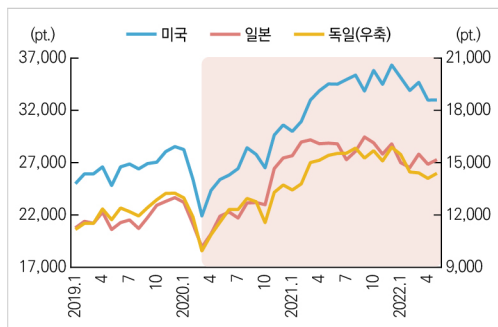
1) 2022년 1월 용역보고서 「글로벌 금융리스크 분석 지수 개발」 참조

[그림 9] 글로벌 주가 추이



자료: 통주: 선진국과 신흥국은 주가는 MSCI지수 기준
자료: Bloomberg

[그림 10] 주요국 주가 추이



주: 미국 주가는 다우존스지수, 일본 주가는 니케이 지수,
독일 주가는 DAX지수 기준
자료: Bloomberg

2. 에너지 및 원자재

가. 국제 가격

5월 「석유」 가격은 전월대비 및 전년동월대비 모두 상승

- 두바이유, 브렌트유, 서부텍사스중질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원유 가격은 배럴당 110.1 달러로 전월 대비 및 전년동월대비 각각 6.5%, 65.8% 상승

- 국제원유 가격(달러/배럴): (‘22.3월)112.4 → (4월)103.4 → (5월)110.1

5월 「석탄」 가격은 전월대비 및 전년동월대비 모두 상승

- 석탄 가격은 톤당 366.8 달러로, 전월대비 및 전년동월대비 각각 27.3%, 242.7% 상승

- 석탄 가격(달러/톤): (‘22.3월)324.4 → (4월)288.2 → (5월)366.8

5월 「천연가스」 가격은 전월대비 및 전년동월대비 모두 상승

■ 천연가스 가격은 백만비티유(mmbtu)당 16.5 달러로 전월대비 및 전년동월대비 각각 1.5%, 85.4% 상승

- 미국 내 천연가스 가격(8.1 달러/mmbtu)은 전월대비 및 전년동월대비 각각 24.6%, 181.7% 상승하였고, 유럽 천연가스 가격(29.9 달러/mmbtu)은 전월대비 7.3% 하락한 반면, 전년동월대비 235.0% 크게 상승
- 천연가스 가격(달러/mmbtu²⁾): ('22.3월)15.1 → (4월)16.3 → (5월)16.5

[그림 11]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



주: 에너지 품목별 단위가격은 달러로 표시하며, 석유는 배럴(bbl), 석탄은 메트릭톤(mt), 천연가스는 백만비티유(mmbtu) 단위당 가격임
 자료: 세계은행(World Bank) 및 석유수출국기구(OPEC)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5월 「농산물」 지수는 전월대비 하락, 전년동월대비 상승

■ 농산물 지수는 133.8로 코코넛 오일, 아자핵유, 해바라기유 등의 가격이 하락하여 전월대비 4.6% 하락, 밀, 목화 등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년동월대비 19.5% 상승

- 농산물 지수: ('22.3월)132.8 → (4월)134.4 → (5월)133.8

2) 비티유(btu: british thermal unit, 영국 열량 단위): 질량 1파운드의 물 온도를 화씨 1도(1℉)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량.

5월 「식품」 지수는 전월대비 및 전년동월대비 모두 상승

- 식품 지수는 159.0으로 닭고기, 오렌지, 팜유, 유채씨유 등의 가격이 상승하여 전월대비 및 전년동월 대비 각각 0.1%, 24.6% 상승

• 식품 지수: ('22.3월)157.4 → (4월)158.9 → (5월)159.0

5월 「금속·광물」 지수는 전월대비 및 전년동월대비 모두 하락

- 금속·광물 지수는 122.5로 주석, 니켈, 아연, 철광석, 알루미늄 등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월대비 및 전년동월대비 각각 11.3%, 2.7%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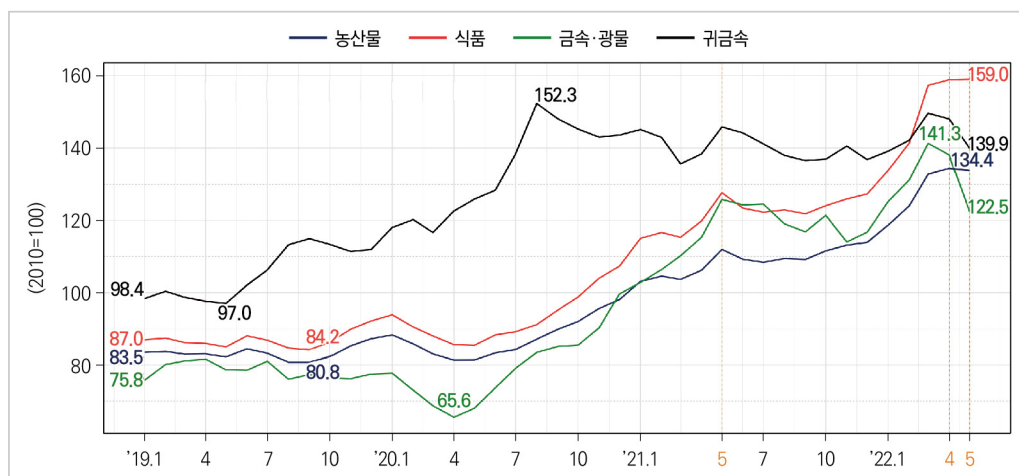
• 금속·광물 지수: ('22.3월)141.3 → (4월)138.1 → (5월)122.5

5월 「귀금속」 지수는 전월대비 및 전년동월대비 모두 하락

- 귀금속 지수는 139.9로 금, 백금, 은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월대비 및 전년동월대비 각각 5.5%, 4.0% 하락

• 귀금속 지수: ('22.3월)149.6 → (4월)148.1 → (5월)139.9

[그림 12] 원자재 가격지수 추이



자료: 세계은행(World Bank)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국내 에너지 수요]

■ 2022년 3월 「최종에너지 소비」³⁾는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월대비 감소

- 최종에너지 소비는 석탄을 제외한 모든 에너지원 소비가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대비 1.0% 증가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신재생 및 기타(8.1), 신재생 및 기타(10.6), 도시가스(7.3), 전력(6.4), 열(3.6), 석유(1.3), 액화천연가스(LNG, 0.1), 석탄(-15.6)
- 전월대비로는 석유, 석탄, 신재생 및 기타 소비가 증가한 반면, 도시가스, 열, 전력 등의 에너지원 소비가 감소하면서 1.2% 감소
 - 전월대비 증감률(%): 신재생 및 기타(13.5), 석유(5.7), 석탄(5.1), 전력(-3.6), LNG(-9.5), 도시가스(-18.9), 열(-37.8)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소비]

(단위: 1,000 toe)

	2019	2020	2021p	2022p				
				3월	2월	3월	전년동월 대비	전월 대비
합계	231,353	222,563	234,654	20,008	20,457	20,212	1.0	-1.2
전년동기대비	-0.9	-3.8	5.4	5.3	3.8	1.0		
석탄	32,057	30,457	31,798	2,797	2,247	2,361	-15.6	5.1
석유	116,125	109,344	116,713	9,611	9,204	9,733	1.3	5.7
액화천연가스	2,909	3,602	3,478	272	301	272	0.1	-9.5
도시가스	23,943	23,100	24,287	2,522	3,338	2,707	7.3	-18.9
전력	44,763	43,797	45,875	3,704	4,089	3,942	6.4	-3.6
열	2,647	2,770	2,901	298	497	309	3.6	-37.8
신재생 및 기타	8,910	9,493	9,602	803	782	888	10.6	13.5

주: 2021년, 2022년 자료는 잠정치(p)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3) 최종에너지는 산업, 수송, 가정·상업, 그리고 공공 부문 등 최종에너지 소비 부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로, 최종소비자가 직접 사용한 1차에너지와 전환과정을 거친 2차에너지가 해당되며, 최종에너지 소비는 일반적으로 실물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됨

나. 전력수급동향

5월 「전력공급예비력」은 안정적이며, 「연료비」는 가스비용 하락으로 상승폭 둔화

■ 5월 공급예비력 11.3GW, 전력공급예비율 15.5%로 전력 수급은 안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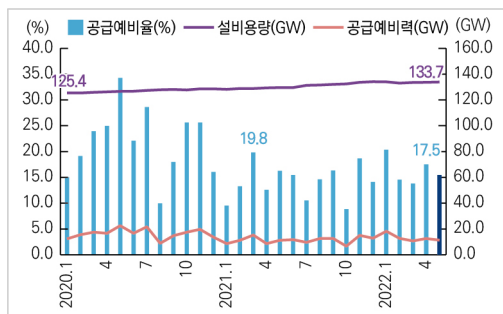
- 발전설비용량은 133.9GW로 전년동월대비 3.4% 증가

※ 전력공급안정성은 공급예비력을 기준으로 하며, 공급예비력이 5.5GW 미만으로 낮아질 경우 냉난방온도 관리, 수요관리 제도 시행, 추가 발전소 가동 등 '전력수급 비상조치'를 시행하며 그 이상에서는 안정적으로 판단

■ 5월 에너지원별 화력 발전의 연료비 단가는 전년동월대비로는 80% 상당 상승하여 발전비용 부담이 높으나, 가스발전비용이 전월대비 하락하면서 총 발전비용 상승폭이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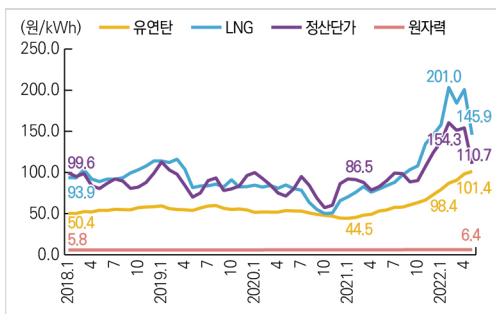
- 석탄(유연탄)발전 연료비 단가는 1kWh당 101.4원으로 전월대비 3.0%, 전년동월대비 91.0% 상승했으며, 가스(LNG)발전 연료비단가는 145.9원/kWh로 전월대비로는 27.4% 하락했으나 전년동월 대비 145.9% 상승
- 전력거래소에서 발전사에 지급한 1kWh당 정산단가는 110.7원으로 전년동월(82.7원)보다 33.8% 상승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28.3% 하락

[그림 13] 월별 발전설비용량 및 전력공급예비율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그림 14] 에너지원별 연료비 단가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5월 「에너지원별 발전량」은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중심으로 증가

■ 총 전력거래량*은 전년동월대비 2.4% 증가했으며, 전월대비 발전량은 3.0% 증가하여, 역대 1~5월 누적 전력거래량 최고 기록을 경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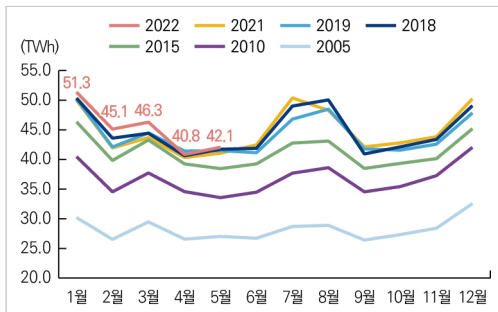
- 금년 전력거래량은 코로나 19 이전 수준의 회복을 넘어설 뿐 아니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2018년을 상회

※ 전력거래량은 전력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된 전력량을 의미하며, 총 발전량에서 발전소의 소내소비량과 가정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자가소비량 등은 제외한 통계임

■ 에너지원별 발전량은 전년동월대비 원자력이 12.9%, 신재생 및 기타가 6.7%, 석탄이 1.9% 증가했으며, 가스는 6.5%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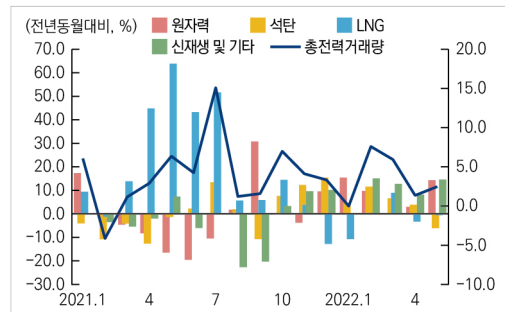
-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은 가스 28.1%, 석탄 31.1%, 원자력 33.1%, 신재생 및 기타 7.1% 순

[그림 15] 월별 전력거래량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그림 16] 에너지원별 발전량 변화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4월 「전력수요」는 전년동월대비 4.4% 증가

■ 전년동월대비 총 전력수요는 4.4% 증가했는데, 서비스부문의 수요가 가장 크게 증가하여 7.0% 상승

- 산업부문과 가정부문의 전력소비는 평균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3.5%와 3.2% 증가에 그쳐, 코로나 19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서비스부문 생산활동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추정

■ 전월대비 총 전력수요는 4.5% 감소하였으며, 공공부문, 서비스부문, 산업부문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계절적 요인으로 추정

[표 1] 부문별 전력수요

(단위: GWh, %)

	2019	2020	2021	2022p				
				4월	3월	4월	전년동월 대비	전월 대비
계	520,499	509,270	533,431	41,900	45,837	43,758	4.4	-4.5
전년동기대비	-1.1	-2.2	4.7	3.5	6.4	4.4		
가정부문	70,455	74,073	77,558	5,910	6,027	6,097	3.2	1.2
공공부문	24,458	23,623	25,026	1,916	2,243	1,995	4.1	-11.1
서비스부문	145,816	142,881	148,315	11,112	12,752	11,894	7.0	-6.7
산업부문	283,705	268,692	281,532	22,963	24,815	23,772	3.5	-4.2

주: 부문별 전력수요는 전력판매량을 의미하며, 2022년 자료는 잠정치(p)

자료: 한국전력, 「전력통계월보」 제522호

3. 부동산

5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전월대비 상승폭 축소

■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국 0.01% 수도권 -0.04% 지방은 0.06%로 지난달에 비해 상승폭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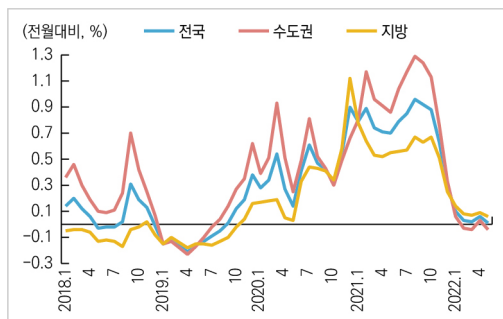
- 수도권은 개발호재 지역위주로 상승했으나, 관망세 지속 및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하락 전환
- 지방은 전북 0.45%, 경남 0.22%, 강원 0.20% 순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으며, 대구 -0.50%, 세종 -0.49%, 대전 -0.13% 순으로 하락세를 보임

5월 전국 「전월세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세가 소폭하락, 월세수요 증가로 전월과 유사

■ 주택 전월세 통합지수 변동률은 전국 0.05%, 수도권 0.05%, 지방 0.06%로 지난달에 비해 상승폭 소폭 축소

- 수도권은 전세가 하락폭이 소폭 축소되고, 월세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월세통합지수 상승폭 소폭 확대
- 지방은 경남, 울산 등은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세종, 대구 등은 전월세 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상승폭이 소폭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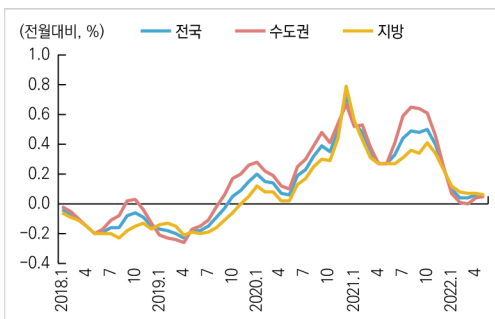
[그림 17] 권역별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주: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며,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 지역이며, 지방은 수도권 이외 지역임

자료: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그림 18] 권역별 주택 전월세 통합지수 변동률



주: 전월세 통합지수 변동률이며,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 지역이며, 지방은 수도권 이외 지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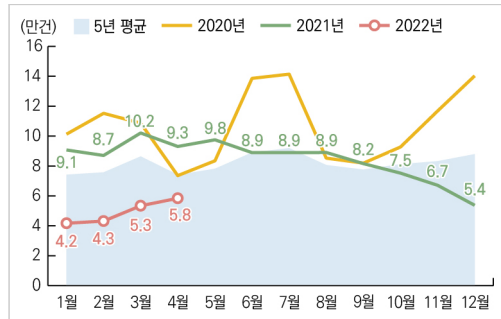
자료: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4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서울, 경기, 울산지역의 거래가 늘면서 전월대비 증가

■ 주택 매매 거래량은 5만 8,407건으로 전월대비 9.3% 증가, 전년동월대비 37.2%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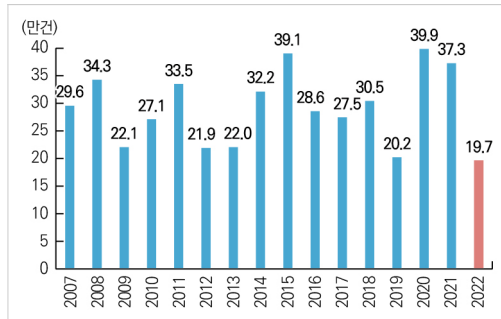
- 수도권(2.3만건)은 전월대비 16.1% 증가, 전년동월대비 48.1% 감소
- 지방(3.5만건)은 전월대비 5.1% 증가, 전년동월대비 27.0% 감소

[그림 19] 월별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



자료: 국토교통부

[그림 20] 연도별 4월 누적 주택 매매 거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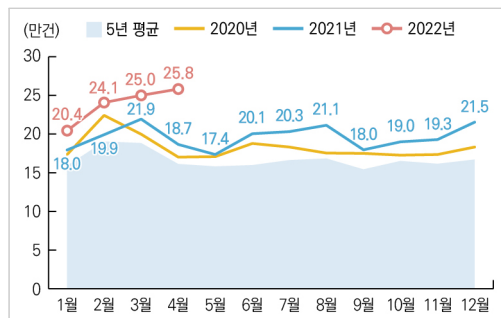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4월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월세 거래량의 상대적 증가로 전월대비 소폭 증가

■ 전월세 거래량은 25만 8,318건으로 전월대비 3.3% 증가, 전년동월대비 38.5% 증가

-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50.4%로 전월대비 0.9%p 증가, 전년동월대비 7.7%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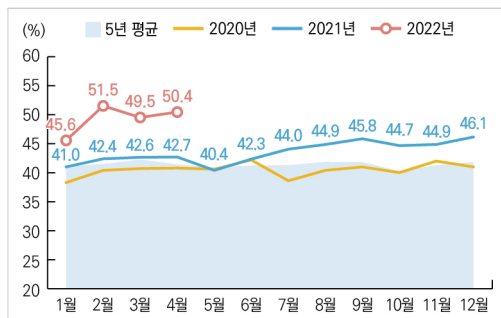
[그림 21] 월별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



주: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

자료: 국토교통부

[그림 22] 월별 전국 월세 비중



주: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을 바탕으로 구함

자료: 국토교통부

IV

해외경제 동향

최근 미국 경제는 생산과 소비의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오름세는 확대

- 전산업생산(전월대비, %): ('22.2월)1.0 → (3월)0.9 → (4월)1.1
- 실질개인소비지출(전월대비, %): ('22.2월)0.1 → (3월)0.5 → (4월)0.7
- 소비자물가지수(전년대비, %): ('22.3월)8.5 → (4월)8.3 → (5월)8.6

중국경제는 생산, 소비 등 주요 실물지표가 감소 전환되며 회복세가 약화되는 모습

- 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2.1~2월)7.5 → (3월)5.0 → (4월)-2.9
-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22.1~2월)4.9 → (3월)-3.5 → (4월)-11.1
- 종합PMI: ('22.3월)48.8 → (4월)42.7 → (5월)48.4

유로지역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물가 급등으로 실물 및 경기지표의 회복세 둔화

- 산업생산(전월대비, %): ('22.1월)-0.8 → (2월)0.5 → (3월)-1.8
- 소매판매(전월대비, %): ('22.2월)0.5 → (3월)0.3 → (4월)-1.3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2.3월)7.4 → (4월)7.4 → (5월)8.1
- 종합PMI: ('22.3월)54.9 → (4월)55.8 → (5월)54.8

일본경제는 중국 상하이 등 봉쇄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둔화되는 모습

- 광공업 생산(전월대비, %): ('22.2월)2.0 → (3월)0.3 → (4월)-1.3
- 소매판매(전월대비, %): ('22.2월)-0.9 → (3월)2.0 → (4월)0.8
- 종합PMI: ('22.2월)45.8 → (3월)50.3 → (4월)51.1 → (4월)52.3

1. 미국

최근 미국 경제는 생산과 소비가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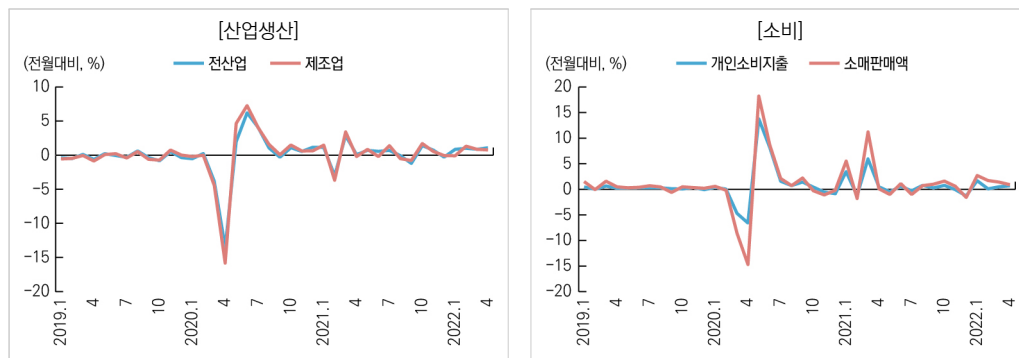
■ 4월 중 생산은 제조업에서 전월의 증가세를 이어가며 전산업생산의 증가세가 전월보다 확대되었고, 선행지표인 5월 중 ISM제조업지수는 소폭 상승

- 전산업생산(전월대비, %): ('22.2월)1.0 → (3월)0.9 → (4월)1.1
- 제조업생산(전월대비, %): ('22.2월)1.3 → (3월)0.8 → (4월)0.8
- ISM 제조업 PMI(기준치 50): ('22.3월)57.1 → (4월)55.4 → (5월)56.1

■ 4월 중 소비지표는 실질개인소비지출이 내구재(3월 0.7% → 4월 2.3%)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증가 폭이 확대

- 실질개인소비지출(전월대비, %): ('22.2월)0.1 → (3월)0.5 → (4월)0.7
- 소매판매액(전월대비, %): ('22.2월)1.7 → (3월)1.4 → (4월)0.9

[그림 1] 미국의 월별 산업생산 및 소비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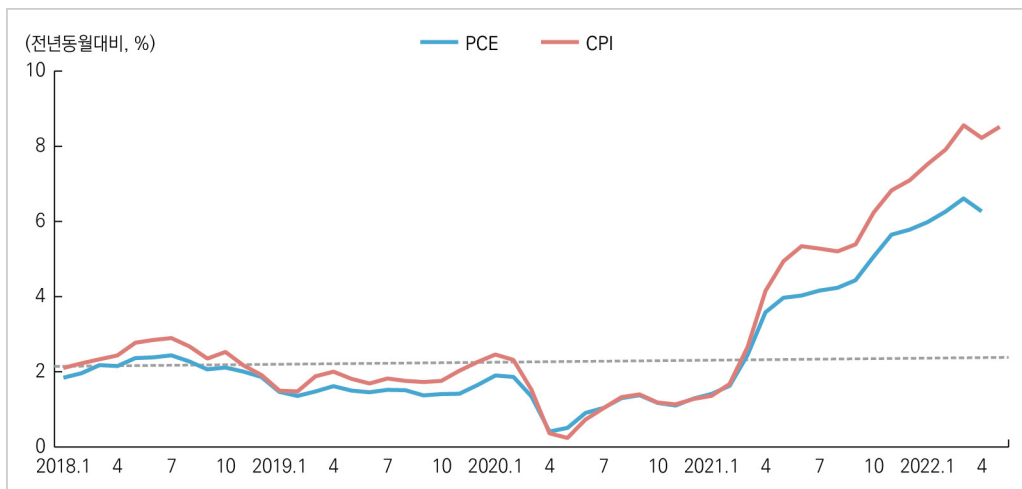
■ 5월 중 노동시장은 전월에 이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견실한 고용 증가세 지속

- 5월 중 비농가취업자수는 전월대비 39.0만 명(서비스업 27.4만 명, 건설업 3.6만 명, 제조업 1.8만 명)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전월과 동일하게 낮은 수준 유지
- 비농가취업자수(전월대비, 만명): ('22.3월)39.8 → (4월)43.6 → (5월)39.0
- 실업률(%): ('22.2월)3.8 → (3월)3.6 → (4월)3.6 → (5월)3.6

■ 5월 중 소비자물가는 오름세가 전월보다 확대

- 4월 중 PCE물가의 오름세가 전월보다 둔화되며 인플레이션 압력 둔화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5월 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월보다 확대
- PCE물가지수(전년대비, %): ('22.2월)6.3 → (3월)6.6 → (4월)6.3
- 소비자물가지수(전년대비, %): ('22.3월)8.5 → (4월)8.3 → (5월)8.6
- 기대인플레이션(미시건대 서베이 기준, %): ('22.3월)5.4 → (4월)5.4 → (5월)5.3

[그림 2] 미국의 개인소비지출(PCE)물가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주: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물가지수는 개인이 미국에서 소비한 모든 품목의 평균 가격 수준을 나타내며, 소비자물가지수에 비해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의료비와 주거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 5월 중 시장금리는 장기금리(10년물) 상승폭이 전월에 비해 둔화

-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장기금리 상승폭이 전월에 비해 둔화된 가운데 장단기 금리차는 전월에 비해 확대
- 장기금리(10년물기준)는 월평균 2.90%를 기록(전월대비 0.15%p 상승)
- 장기금리(10년물, 월평균, %): ('22.3월)2.13 → (4월)2.75 → (5월)2.90
- 단기금리(2년물, 월평균, %): ('22.3월)1.91 → (4월)2.54 → (5월)2.62
- 기간금리차(국채10년물-2년물,%p): ('22.3월)0.22 → (4월)0.21 → (5월)0.28

2. 중국

중국경제는 생산, 소비 등 주요 실물지표가 감소 전환되며 회복세가 약화되는 모습

■ 4월 중국의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9% 감소

- 산업별로는 광업(9.5%)과 전기·가스·수도업(1.5%)에서 모두 늘어났으나 제조업(-4.6%)에서 감소 전환
- 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2.1~2월)7.5 → (3월)5.0 → (4월)-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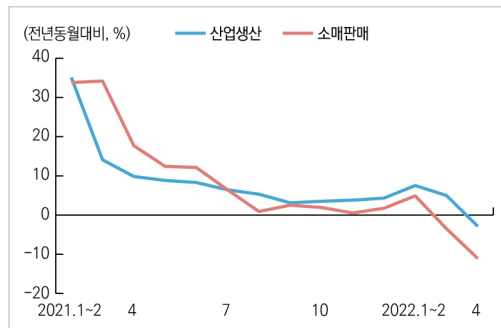
■ 4월 중국의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11.1% 감소

- 소비유형별로 상품(-9.7%)과 외식업(-22.7%)의 감소세가 지속
-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22.1~2월)4.9 → (3월)-3.5 → (4월)-11.1

■ 4월 중국의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동월대비 6.8%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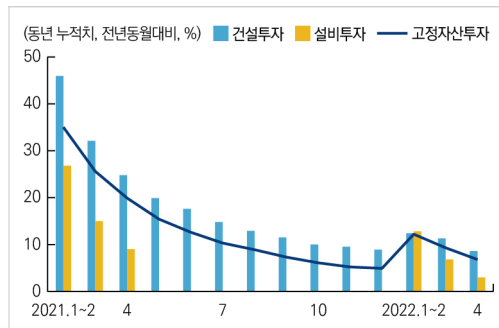
- 투자부문별로 건설투자(8.6%)와 설비투자(3.0%)가 모두 증가
- 고정자산투자(동년누적치, 전년동월대비, %): ('22.1~2월)12.2 → (3월)9.3 → (4월)6.8

[그림 3] 중국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추이



자료: CEIC

[그림 4] 중국 고정자산투자 추이



자료: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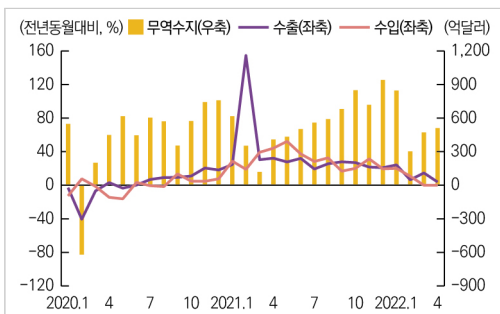
■ 4월 중국의 「무역수지」는 511.2억 달러 흑자를 기록

-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3.9% 증가하고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같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 무역수지(억달러): ('22.2월)302.1 → (3월)470.6 → (4월)511.2
- 수출(전년동월대비, %): ('22.2월)6.3 → (3월)14.6 → (4월)3.9
- 수입(전년동월대비, %): ('22.2월)10.6 → (3월)0.0 → (4월)0.0

■ 4월 중국의 「도시조사실업률」은 6.1%로 집계되었으며, 「도시지역 신규취업자수(누적치)」는 406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1%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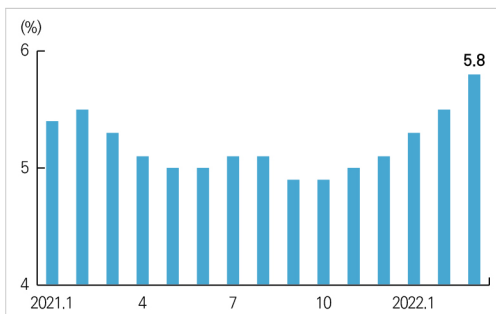
- 실업률(%): ('22.2월)5.5 → (3월)5.8 → (4월)6.1
- 도시지역 신규취업자수(누적치, 만명): ('22.2월)163 → (3월)285 → (4월)406

[그림 5] 중국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CEIC

[그림 6] 중국 실업률 추이



자료: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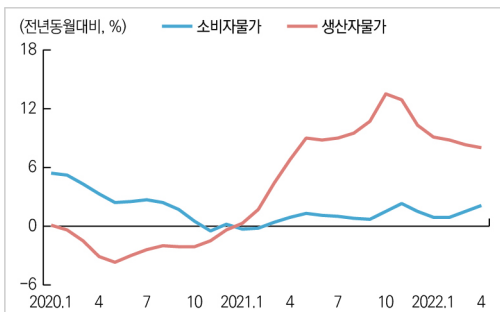
■ 4월 중국의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1% 상승

- 소비자물가는 국제 곡물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확대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2.2월)0.9 → (3월)1.5 → (4월)2.1

■ 5월 중국의 「종합PMI(구매관리자지수)」는 기준선을 하회하는 48.4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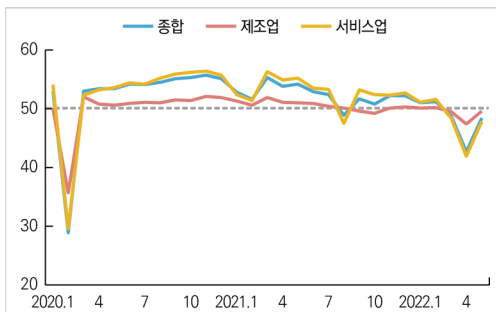
- 종합PMI는 전월보다 5.7p 상승하였으나 3개월 연속 기준선(50.0)을 하회
- 5월 중국의 제조업PMI와 서비스업PMI는 각각 49.6, 47.8을 기록
- 종합PMI: ('22.3월)48.8 → (4월)42.7 → (5월)48.4

[그림 7] 중국 물가지수 추이



자료: CEIC

[그림 8] 중국 PMI 추이



자료: CEIC

3. 유로지역

유로지역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물가 급등으로 실물 및 경기지표의 회복세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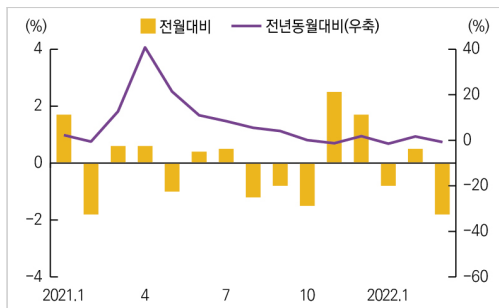
■ 2022년 3월 유로지역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1.8% 감소

- 내구소비재(0.8% 증가)를 제외한 자본재(-2.7%), 비내구재(-2.3%), 중간재(-2.0%), 에너지(-1.7%) 모두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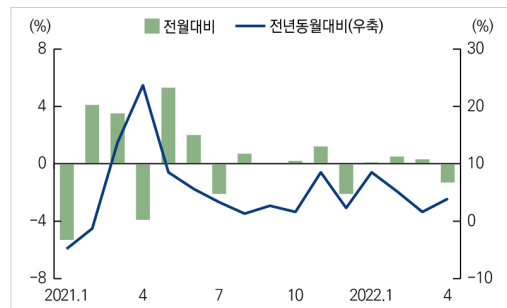
■ 2022년 4월 유로지역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1.3% 감소

- 국가별로는 슬로베니아(-7.7%), 독일(-5.4%), 포르투갈(-3.0%)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남

[그림 9] 유로지역 산업생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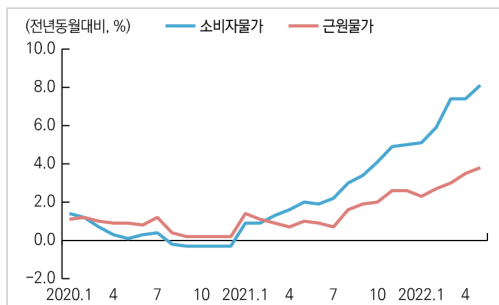
[그림 10] 유로지역 소매판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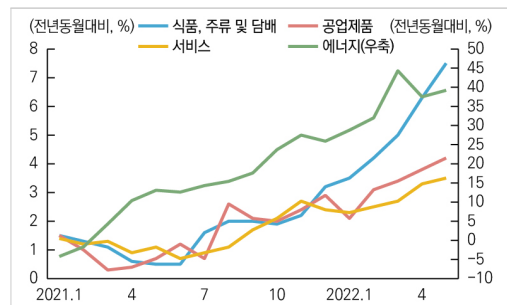
■ 2022년 5월 유로지역 「소비자물가」는 8.1% 상승

-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석유류 등 에너지가격(39.2%)의 오름세 지속, 음식료품 가격(7.5%) 상승 등에 기인하여 7개월 연속 최고치 경신

[그림 11] 유로지역 소비자물가 추이



[그림 12] 유로지역 품목별소비자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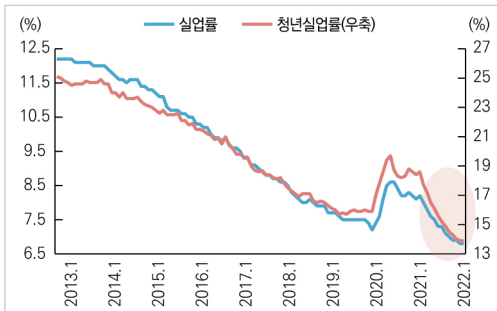
■ 2022년 4월 유로지역의 「실업률」은 6.8%를 기록

- 실업률은 2021년 7월(8.6%) 정점을 기록한 후 개선세 지속

■ 2022년 5월 유로지역 「소비자신뢰지수」는 기준선을 큰 폭으로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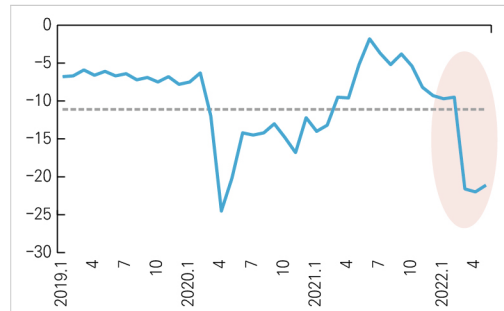
- 2022년 4월 중 소비자신뢰지수는 전월(22.0)보다 소폭 상승한 21.2를 기록하였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물가급등의 영향으로 여전히 기준선(-11.1)을 큰 폭으로 하회

[그림 13] 유로지역 실업률 추이



자료: ECB, Bloomberg

[그림 14] 유로지역 소비자신뢰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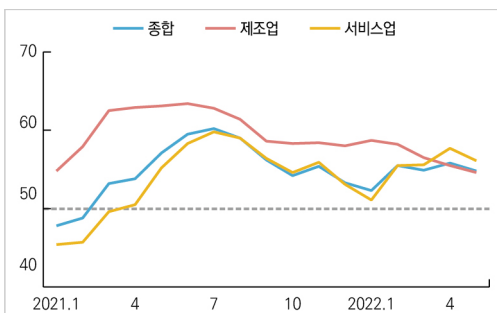
주: 점선은 장기평균치(-11.1)이며, 소비자신뢰지수가 장기평균치보다 낮으면 경제상황과 전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소비자가 많다는 의미

자료: EU 집행위원회

■ 2022년 5월 유로지역 「종합PMI」는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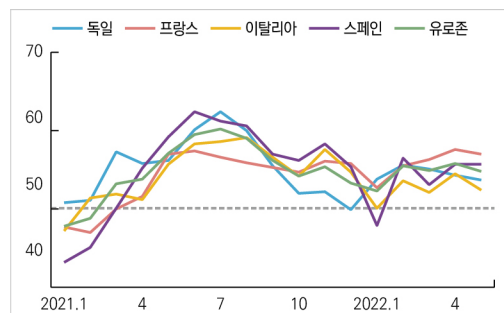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봉쇄조치 등에 따른 공급망 차질로 제조업 PMI가 하락하였고 가격 상승 등이 서비스수요를 제약하면서 서비스업 PMI도 하락
- 유로지역 종합PMI: ('22.3월)54.9 → (4월)55.8 → (5월)54.8
- 유로지역 제조업PMI: ('22.3월)56.5 → (4월)55.5 → (5월)54.6
- 유로지역 서비스업PMI: ('22.3월)55.6 → (4월)57.7 → (5월)56.1

[그림 15] 유로지역 PMI 추이



자료: Bloomberg, Markit

[그림 16] 유로지역 국가별 종합 PMI 추이



자료: Bloomberg, Markit

4. 일본

일본경제는 중국 봉쇄의 영향으로 생산과 물류가 지연되며 실물지표의 회복세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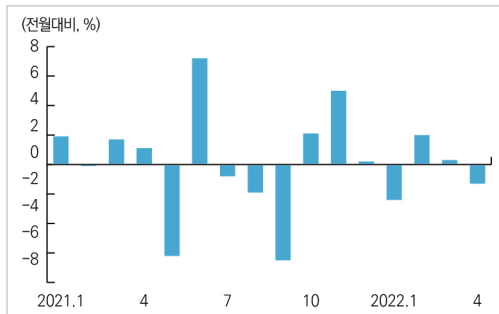
■ 4월 일본의 「광공업 생산」은 3개월 만에 전월대비 1.3% 감소로 전환

- 재택근무 감소에 따른 전자제품 수요 감소로 전자부품과 디바이스 공업 생산이 줄고, 상하이 봉쇄에 따른 부품 조달과 물류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생산용 기계공업, 자동차공업 등에서 감소
- 광공업 생산(전월대비, %): ('22.2월)2.0 → (3월)0.3 → (4월)-1.3

■ 5월 일본의 「종합PMI(구매관리자지수)」는 52.3을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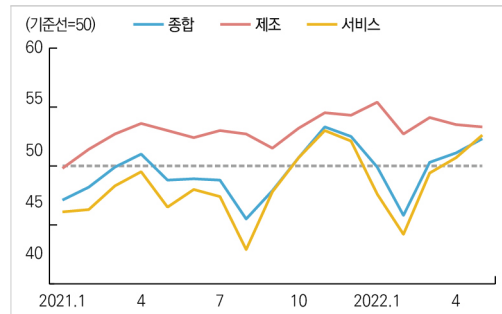
- 종합PMI는 제조업PMI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PMI의 상승에 힘입어 증가세를 지속
- 종합PMI: ('22년.2월)45.8 → (3월)50.3 → (4월)51.1 → (5월)52.3
- 제조업PMI: ('22년.2월)52.7 → (3월)54.1 → (4월)53.5 → (5월)53.3
- 서비스PMI: ('22년.2월)44.2 → (3월)49.4 → (4월)50.7 → (5월)52.6

[그림 17] 일본 광공업생산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18] 일본 PMI 추이



자료: Bloomberg

■ 4월 일본의 「소매판매액」은 전월대비 0.8%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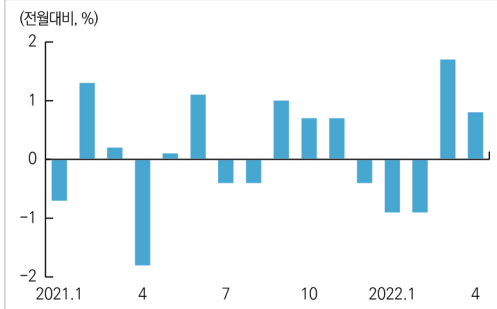
- 코로나19가 진정세로 접어들어 외출 수요가 회복되었으며,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2개월 연속 개선세를 이어감
- 소매판매(전월대비, %): ('22.2월)-0.9 → (3월)1.7 → (4월)0.8

■ 4월 일본의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5% 상승

- 2021년 9월 이후 오름세를 이어가는 소비자물가는 4월에 오름폭이 확대되며 2014년 10월(2.9%) 이후 최고치를 기록
- 근원물가도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어 전년동월대비 0.8%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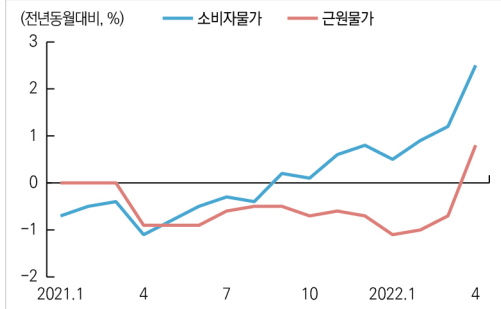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2.2월)0.9 → (3월)1.2 → (4월)2.5
- 근원물가(신선식품·에너지 제외, 전년동월대비, %): ('22.2월)-1.0 → (3월)-0.7 → (4월)0.8

[그림 19] 일본 소매판매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20] 일본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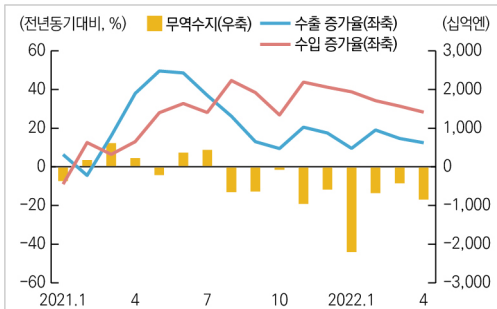
■ 4월 일본의 「무역수지」는 8,428억 엔 적자를 기록

- 무역수지(십억엔): ('22.2월)-677 → (3월)-424 → (4월)-843
- 수출과 수입은 각각 전년동월대비 12.5%와 28.3%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 ('22.2월)19.1 → (3월)14.7 → (4월)12.5
- 수입(전년동월대비, %): ('22.2월)34.2 → (3월)31.4 → (4월)28.3

■ 5월말 일본의 「엔/달러 환율」은 128.7엔을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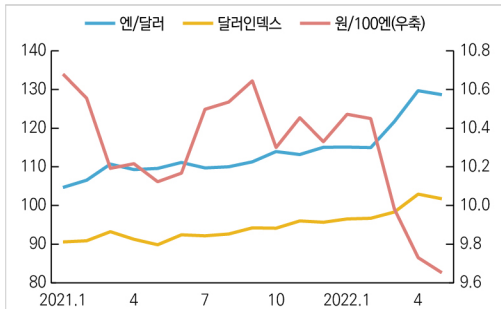
- 엔/달러 환율은 전월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연초 대비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
- 원/엔 환율(월말): ('22.2월)115.0 → (3월)121.7 → (4월)129.7 → (5월)128.7

[그림 21] 일본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22] 일본 엔화 환율 추이



주: 월말 기준

자료: Bloomberg

미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¹⁾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점검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박승호 경제분석관

1. 최근 동향

최근 미 연준은 물가 불안 대응을 위해 1994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75%p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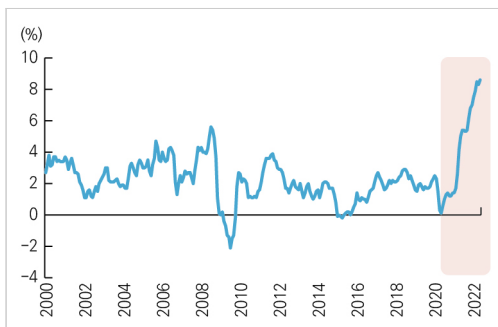
■ 미 연준은 2022년 6월 기준금리를 0.75~1.0%에서 1.50~1.75%로 인상

- 이는 5월 미국 소비자물가가 41년래 최고치인 8.6% 상승한데 기인
- 또한 2022년 6월 초부터 시작된 국채 매각 등을 통한 미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도 계획에 따라 지속할 예정

■ 미 연준은 향후에도 지속적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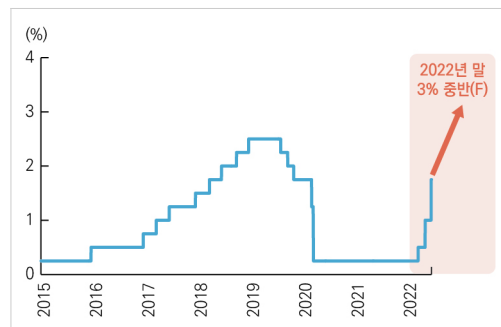
- 미 연준 점도표²⁾, 미국 기준금리 선물거래 등을 고려시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2022년말 3% 중반, 2023년말 3% 후반까지 인상할 전망
- 파월 연준의장도 물가불안이 계속되는 한 공격적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을 시사

[그림 1]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자료: Datastream

[그림 2] 미 연준 기준금리 추이



자료: Datastream

1) 기준금리를 한번에 0.75%p 올리는 것을 의미. 베이비스텝은 0.25%p 인상을 의미하며, 빅스텝은 0.50%p 인상을 나타냄.

2) 점도표는 미 연준이 언제 금리를 조정할 것인지, 금리 인하 또는 금리 인상 시기를 예고해 주는 지표로 미 연준의 18명 위원들이 찍은 금리 예상치 점들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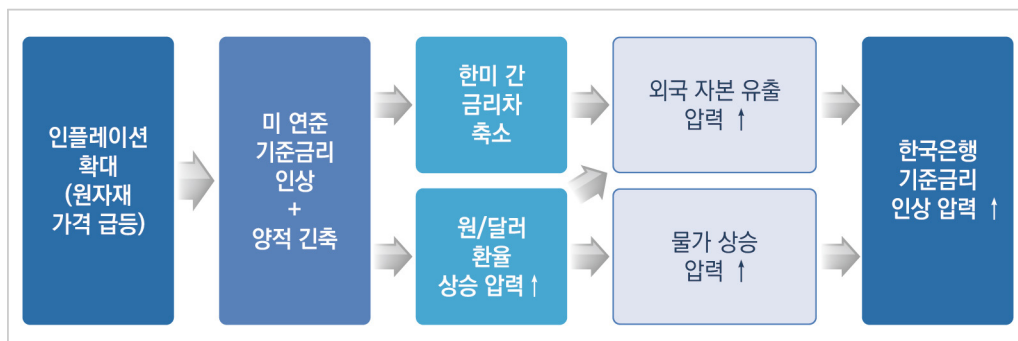
미 연준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은 우리나라 기준금리 상승 압력을 높일 가능성

■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은 한·미 간 금리차 축소, 환율 약세 경로를 통해 자본유출과 물가상승 압력을 높이고 이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강화시킬 요인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금리차가 축소될 경우 국내 투자 유인이 감소하고 위험자산 회피심리가 강화되어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가능성
-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달러 유동성이 줄어들 경우 원화가치 하락 등으로 수입비용이 증가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

■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본유출이 증가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경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

[그림 3] 미 연준의 긴축기조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연계 Flow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우리나라 금융시장,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필요

■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은행의 통화긴축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검토할 필요

2.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초 강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최근 미 연준 금리인상, 물가 불안 확대 등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가속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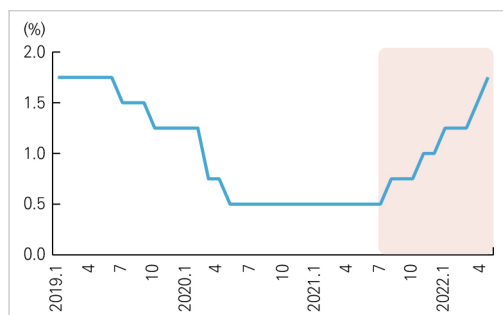
■ 한국은행은 물가불안 등으로 2022년 들어 3차례 기준금리를 인상

- 1월, 4월, 5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해 6월 기준 기준금리는 1.75%

■ 2022년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소비자물가 상승폭도 확대되는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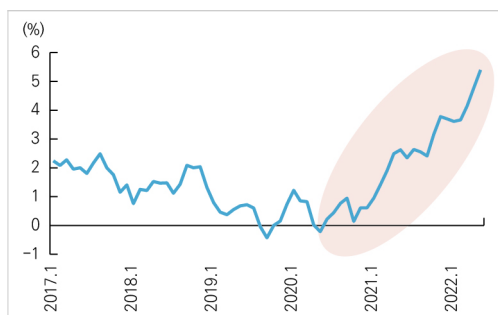
- 2022년 1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8%, 4월은 4.8%, 특히 5월은 5.4% 나타내며 1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 한편 원/달러 환율 변동성도 확대되며 2022년 5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1,268.4원으로 2021년 12월 평균 1,183.8원 대비 7.1% 상승

[그림 4]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 추이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그림 5]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시중금리 상승 경로를 통해 경제에 부정적 영향 가능성

■ 기준금리 상승은 단기 시장금리, 장기 시장금리, 대출 금리 등을 상승시켜 금융시장의 금리 전반에 영향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콜금리 등 단기 시장금리는 즉시 상승하고 대출 금리 및 장기 시장금리도 상승
- 실제 전년말대비 2022년 5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한 가운데 KORIBOR(3월)³⁾ 금리는 동기간 0.38%p, 국고채(3년)은 1.22%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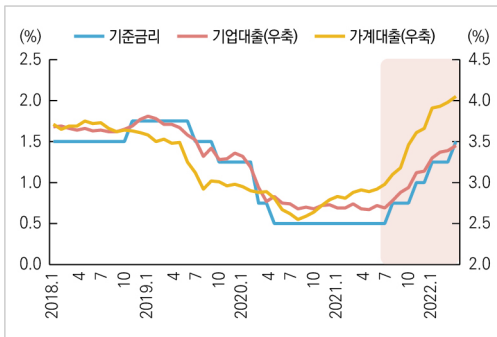
3) KORIBOR금리는 우리나라 은행들끼리 단기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금리를 의미

- 2022년 4월 기업 대출금리는 전년말대비 0.31%p, 가계대출 금리는 0.39%p 상승

■ 금리 상승은 소비, 투자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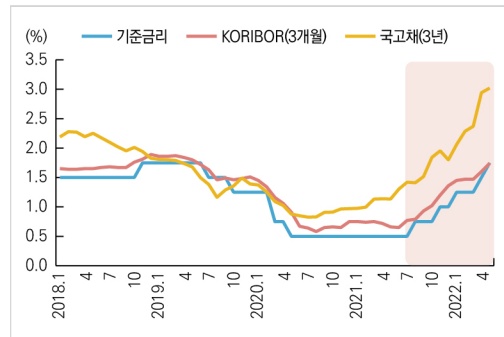
- 시중 금리 상승은 차입을 억제하고 저축을 늘리는 한편 대출이자 부담을 증가시켜 가계의 소비를 감소시키고 한계가구의 파산 가능성을 높임
- 기업의 경우에도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금리 상승은 금융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투자를 위축하고 한계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 영향

[그림 6] 기준금리와 대출금리 간 동조성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그림 7]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간 동조성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또한 기준금리 상승은 자산가격 하락 등을 통해 민간 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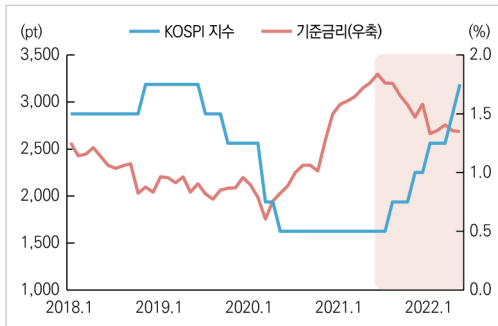
■ 기준금리 상승은 주식, 채권 등 자산가격의 하락 압력을 높이는 요인

- 기준금리 인상은 시중금리 상승으로 연결되어 주식, 채권 등 자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의 현재가치가 낮아지게 되어 자산가격이 하락
- 이는 가계의 자산 감소로 이어져 가계소비의 감소 요인이 될 가능성

■ 한편 기준금리 상승으로 시중 금리가 상승할 경우 은행은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우려 등으로 대출행태가 악화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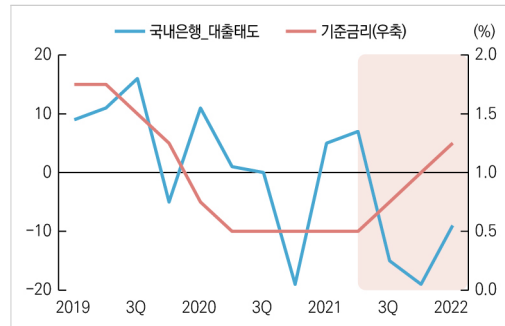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2021년 3분기~2022년 1분기 은행의 대출행태가 음(-)을 기록해 대출이 엄격해졌음을 의미
- 이는 은행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의 투자는 물론 대출자금을 활용한 가계의 소비도 위축할 가능성

[그림 8] 기준금리와 주가 간 연계성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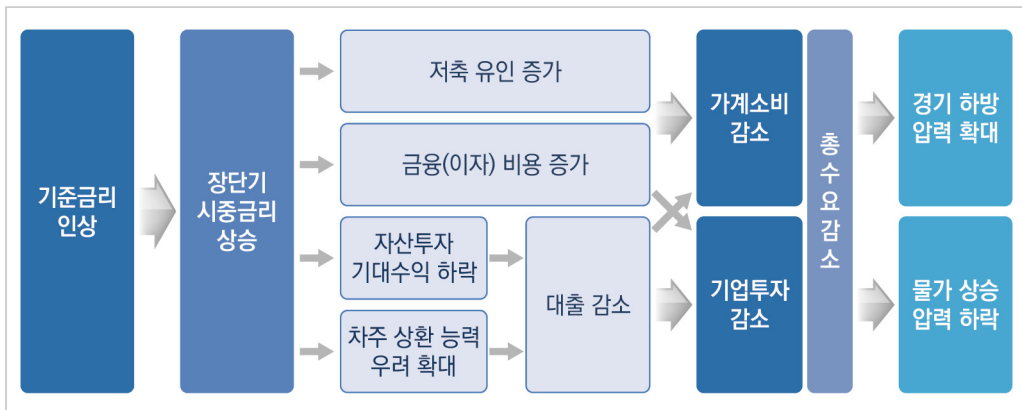
[그림 9] 기준금리와 은행 대출태도⁴⁾ 간 연계성



주: 대출태도가 음(-)은 대출이 엄격해졌음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그림 10] 기준금리 인상과 실물경제 연계 Flow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대출 태도 지수는 시중은행을 설문조사해 향후 은행들이 대출에 어떤 행태를 취할지 보여주는 지표. 해당 분기 '대출을 쉽게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를 조사하는 것으로 은행들이 미래 대출승인에 어떤 행동을 보일지 조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은행 대출 증가율을 예측하는데 활용

3. 시사점

금리상승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

-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자부담 증가 등으로 가계의 소비가 위축되고 취약계층의 파산 우려가 높아지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 특히 가계 취약부문을 대상으로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
- 또한 금리가 상승할 경우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여 기업의 투자활동이 위축될 우려
 - 생산비용 상승, 코로나19 이후 확장적 통화정책 등에 따른 기업 대출 증가등으로 기업들의 재무위험이 증가한 상황
 - 한계기업 등 기업의 재무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또한 한·미간 금리차 축소 또는 역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리스크를 점검할 필요

- 한·미간 금리차 축소가 최근 미 연준의 양적 긴축 등과 맞물려 금융시장 변동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
 - 자본유출 가능성과 원화 환율변동성 확대에 대비할 필요
- 한국과 교역관계가 밀접한 신흥국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안정성이 취약한 신흥국 위기가 국내로 전이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nabo Economic Trends

경제동향

2022년 6월호 | 통권 제30호

발행일 2022년 6월 29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익상

편 집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02-2070-3114)

제 작 (주)케이에스센세이션(02-761-0031)

NABO STATS

재정경제통계시스템

www.nabostats.go.kr

NABOSTATS(재정경제통계시스템)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의정활동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재정·경제 통계,
국회의 예·결산 심사연혁 등을 One-Stop으로 제공하는 통계정보시스템입니다.



재정·경제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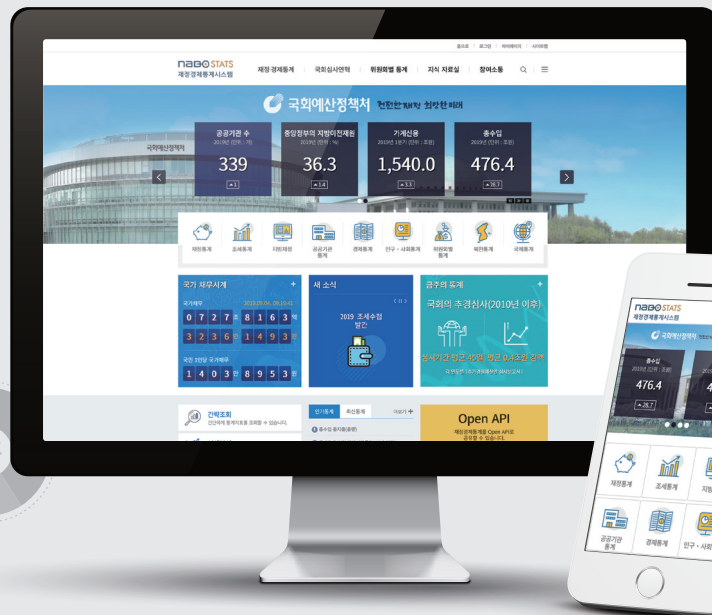
예·결산
심사연혁 제공



국제통계
(OECD·IMF 등)



북한통계



* NABOSTATS의 모든 통계정보는 모바일 웹 또는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업선된 주요 통계는 매년 경제재정수첩, 조세수첩 등 책자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98-001961-06

ISSN 2950-922X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